

제2255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최태원 “작년 150억 달러 사회적 가치 창출” 2



액상형 전자담배 ‘꿈수’ 퇴출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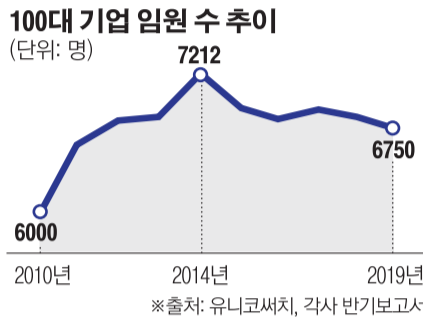
코스피(이일 전주 대비) **2100.20** (+12.31P)
코스닥 **662.37** (+9.97P)
환율(달러당 원화) **1165.60** (-7.4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467%** (+0.002%p)

100대 기업 임원 ‘별과 임시직원’ 사이

스페셜 리포트

‘대기업의 별’ 임원 대해부

- 1 대기업 ‘별’이 지기 시작했다
- 2 나는 이렇게 대기업 ‘별’이 되었다
- 3 ‘진상’과 ‘방상’ 임원 전성시대
- 4 권오현이 말하는 초격차 임원 DNA



승진비율 0.8% ‘핵심인재’ 회사 힘들 땐 가장 먼저 짐싸 해마다 대기업 임원 수 줄어 올해 상반기에만 100명 ‘뚝’

“오를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려오니 보였다.”

대기업 임원을 뜻하는 ‘별’을 따 본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임원이 되기까지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보여준다.

▶ 관련기사 3편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의 임원 비율은 0.8%에 불과하다. 직원 100명 가운데 임원 승진자가 1명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직원들에게 임원 승진은 ‘별’을 다는 것이자 사실상 직장생활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마다 연말이면 임원 승진자와 누락자, 퇴사자가 나온다. 임원 중 극히 일부는 10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며 ‘직업이 임원’이라는 말도 듣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짐을 싸야 하는 이 또한 임원이다. 임원이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나오는 이유다.

임원은 아래에서 취합된 수많은 정보를 취사 선택해 최고경영자에게 올려 보내

고, 자신의 분야에서 의사결정권도 가지면서 경영방침을 현장에 전파, 적용하는 역할을 맡은 기업의 핵심 인재들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숫자는 6843명, 직원은 85만2136명. 직원 125명당 임원이 1명인 셈이다. 2011년에는 105명 중 1명, 2015년에는 107명 중 1명이 임원이었다. 임원 승진을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하자면 그마저도 별 숫자가 더 줄어든 셈이다.

올해 100대 기업 임원 수는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675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작년 대비 100명 가까이 더 줄었다.

100명 가운데 1명인 김상원 자동차기자협회 사무국장은 대우자동차에서 한국지엠까지 25년간 재직, 지난해 홍보 상무 자리까지 오른 뒤 퇴임했다. 준비 없이 회사를 나왔지만 천만다행으로 지금의 협회 자리 제안이 들어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강대선 한일오닉스 대표는 한때 세계 순위 13위였던 STX그룹이 해체되던 2014년 회사를 떠났다. 벤처투자 등 여러 곳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중소·벤처 기업의 대표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LG 계열사 출신인 K 상무는 한 직장에서 23년간 근무하다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회사를 나왔다. 현재 그는 국내 중견기업에서 7년째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처참한 ‘독도 추락헬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사고 나흘 만인 3일 해군 청해진함에 의해 인양되고 있다. 해군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청해진함 갑판 위로 사고 헬기를 인양했지만 내부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색당국은 앞서 실종자 7명 중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 중 시신 1구는 동체 안에 있다고 발표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사고 나흘 만인 3일 해군 청해진함에 의해 인양되고 있다. 해군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청해진함 갑판 위로 사고 헬기를 인양했지만 내부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색당국은 앞서 실종자 7명 중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 중 시신 1구는 동체 안에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 10명 중 7명 “타다, 허용해야”

본지 ‘타다 금지법 발의’ 설문 40% “택시영업 개선 필요”

‘불법운행’ 논란으로 검찰에 기소당한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를 두고 소비자 10명 중 7명꼴로 타다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 관련기사 14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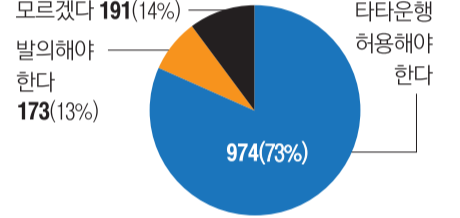
이투데이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377명) 중 73%는 “타다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13%만이 “타다 금지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타다 운영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현재 택시영업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를 기록했다. 또 38%는 공유 모빌리티 시장 확대·스타트업 육성 지원 등을 꼽아 현행 택시 문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답했다.

타다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불법”이라는 답변이 28%로 가장 많았다.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는 단체관광 목적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유사 콜택시 영업을

타다 전면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은?



* 조사기간: 2019년 10월 29일~11월 1일
* 조사대상: 1377명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기존 영업·운영 형태 파괴(24%), 기사 자질 검증 미흡(23%),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2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증세 논의’ 시동 건 정부

국책연구기관 필요성 제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2년 연속 9% 수준의 재정지출을 늘린 가운데 국책연구원이 세입 여건 개선을 위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향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세입 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추가적 ‘증세’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등 참석자들은 내년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내일의 산업은 **맑음**

대한민국 산업의 수 많은 꿈 넥스트라운드가 연결합니다

산업은행은 벤처·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지원하여 대한민국 산업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벤처투자 플랫폼
KDB 넥스트라운드

KDB산업은행

<SK그룹 회장>

최태원 “SK, 1달러 버는 동안 53센트 사회적 가치 창출”

‘베이징포럼 2019’ 연설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와 급격한 과학기술 변화 등 인류가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에 맞서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과 담대한 혁신 등이 필요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일부터 3일간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와 베이징대 등에서 열린 ‘베이징포럼 2019’ 개막 연설을 통해 “오늘날 인류가 테러와 빈곤, 환경오염 같은 오랜 숙제들에 더해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와 급격한 과학 혁신 및 기술 변화라는 새로운 양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6번째인 베이징포럼은 SK가 설립한 장학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이 베이징대와 함께 주최하는 국제학술포럼이다. 최 회장은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포럼에 참석했다.

최 회장은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여러 지정학적 이슈들이 전례 없는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불안정이

작년 ‘사회적 가치’ 150억 달러 지속가능한 기업 토대 마련 최선 미·중 무역갈등 세계 경제 위협 AI 등 새 도전 인류 함께 풀어야

세계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AI), 머신 러닝 같은 첨단 기술들의 급속한 변화 역시 인류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들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두 가지 도전은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 안전과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글로벌 차원의 집단지성 발휘와 공동 행동 △담대한 도전과 혁신 등을 해결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시도의 하나로 최 회장은 SK가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와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노력을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1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베이징포럼 2019’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올해 신년회에서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SK가 건강한 공동체로 가능하면서 동시에 행복을 더 키워나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부족, 환경 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해 궁극적으로 고객, 주주, 사회의 행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SK가 지난해 280억 달러(약

32조7000억 원)의 세전이익을 얻는 동안 150억 달러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는 1달러를 버는 동안 53센트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측정 과정이 완벽하지 않고, 달러당 53센트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충분하지 않지만 쉽 없이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SK의 노력이 많은 기업과 펀드 등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사회적 가치 경영이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는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화폐로 환산해 관리하는 더블보텀라인(DBL) 경영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간접 기여성과(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치) △비즈니스 사회성과(제품·서비스 개발, 생산, 판매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 △사회공헌 사회성과(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 등 3대 분야로 나눠 사회적 가치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위원을 비롯해 하오핑 베이징대 총장, 독일의 유명 석학인 위르겐 코카 베를린 자유대 교수, 웬델 왈라크 예일대 교수, 파울로 포르타스 전 포르투갈 부총리, 수잔 셔크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트럼프 ‘거친 입’에 美금융시장 흔들

미국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트위터 트윗에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위협할 때마다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등 시장이 흔들렸다고 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전미경제연구소(NBER)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NBER는 이날 발간한 ‘중앙은행 독립성 위협’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시장이 트럼프의 연준 위협 발언에 실제로 반응하고 있다며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듀크대와 영국 런던경영대학원 연구진이 이번 논문 작성을 주도했다. 이들 연구진은 “이번 논문은 연준이 자신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뒷

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연준을 계속 공격하면서 미국 경제성장을 지탱하려면 기준금리가 훨씬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준은 그동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괴롭힘에도 독립성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논문은 시장이 트럼프가 트윗을 올릴 때마다 금융시장에서 반응이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논문은 트럼프가 연준과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미국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 트

“금리 낮춰” 파월 상대 트윗 공격 선물시장 계약금리 0.3bp 내려 1년간 금리 하락폭 총 10bp “연준 독립성에 중대한 위협”



럼프가 연준을 비난하는 트윗을 올렸을 때마다 선물시장에서 계약금리가 0.3bp(bp=0.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변동폭이 작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1년간 금리 하락폭은 총 10bp에 달했다. 연준이 일반적으로 금리를 조정할 때마다 그 폭이 25bp라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트윗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논문은 강조했다.

실제로 연준은 금리 움직임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장의 기대와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결국 투자자들이 요동치면서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 즉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시장에 왜곡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가운데 연준이 ‘울며 겨사 먹기’로 이런 왜곡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6월 월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져 연준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금융시장 충격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연준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상했지만 올해는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거듭해서 연준을 비난하고 있다. 그는 연준이 지난 달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렸지만 그 다음 날 트윗에서 “연준이 계속 미국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도록 하고 규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h·point
고객에게 드리는 행복한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워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별 단 지 3년 만에 공장폐쇄... 발만 담갔다 떠났죠”

‘대기업의 별’ 임원 대해부 임원들이 말하는 임원

“임원이 직장의 꽃? 별?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대우그룹 공채에서 대우차로 200명 왔는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 가운데 임원은 2명 정도 될 겁니다.”

김상원 자동차기자협회 사무국장의 부리는 대우다. 1994년 1월 대우그룹으로 입사한 김 사무국장은 25년 동안 홍보 업무를 맡아 오며 홍보 상무 자리까지 역임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대우그룹 해체, 2002년 GM 인수 후 지엠대우를 거쳐 현재의 한국지엠까지 대우자동차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다. 1968년생인 그는 48세에 임원 반열에 올랐다.

김 사무국장은 “2015년 4월에 임원으로 승진해서 3년 8개월 정도 재직했다. 길게 하는 임원들은 10~13년까지 한다. 임원 세계에 발을 잠시 들여놓고 퇴직해 임원생활을 조금 맛본 정도”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가 은퇴한 시기는 지난해 말. 현재 자리가 확정되기 전에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왔다. 무작정은 아니지만, 퇴직 이후는 준비되지 않은 채였다. 나가라고 등을 떠민 이는 없었다. 그가 회사를 떠난 이유는 ‘공허함’ 때문이었다.

김 사무국장은 “처음 대우차에 입사한 뒤 부평공장 사내홍보를 담당하다가 1995년 군산 공장이 준공되며 홍보를 맡아서 했다. 그러나 20년 만에 공장을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견디기 어려웠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이어 “혈기왕성한 신입사원 때 준공된 군산 공장을 대내외에 미친 듯이 홍보했었는데, 내 손으로 공장 접는 것을 언론에 알리려니 굉장히 작심했다. 그때 회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그가 회사를 떠날 때 많은 이들이 만류했다. 주변에서는 가장인 그를 향해 미쳤다는 소리도 했다. 그의 결정에 힘이 되어 준 건 가족이었다.

김 사무국장은 “편안하게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아내에게 퇴직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담담하게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하더라. 깜짝 놀라기도 했고 화를 내면 덜 미안할 텐데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다.

강대선 한일오닉스 대표는 STX 임원 출신이다. STX그룹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때 재계 순위 13위까지 올랐지만 무리한 확장 경영과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2014년 해체됐다. 강 대표는 이때 회사를 퇴임해 자리를 옮겼다. 이후 한국벤처투자 본부장, 팍스넷 경영총괄 사장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강 대표는 2008년에 STX에서 임원 생활을 시작해 7년간 재직했다. 이후에도 다른 직장에서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어 현재 12년째 임원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그가 STX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가진 애

48세 임원 올랐지만 경영악화에 사직서 “직장의 꽃? 막중한 책임감에 고충 많아”

“임원은 1년짜리 임시직... 고용불안 심감” “외부 영입자는 소모품... 5년 내 90% 퇴출” ‘임시직원’이라 부르며 가족회의 연 사람도

사심은 남달랐다. 임원이 되면서 경영진 일원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좋았다. 회사 주요 전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면서 주도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게 했다고 한다.

그는 “수동적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았다”면서도 임원생활의 가장 큰 고충으로 임시직을 꼽았다. 1년 단위의 평가로 언제든 현직을 떠날 수 있어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고충이었다.

LG 계열사 출신의 K 상무는 국내 중견 기업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 K 상무는 LG 계열사 한 곳에서만 23년 근무한 LG맨 출신이다. 그가 자리를 옮긴 건 2010년. 부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임원 승진에서 끝내 탈락하자 회사를 떠났다. K 상무가 입사할 당시 동기는 80명. 현재 5명 정도가 임원으로 남았다.

새로운 직장에서 ‘별’을 달았지만, 임원의 삶은 쉽지 않다.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외부에서 온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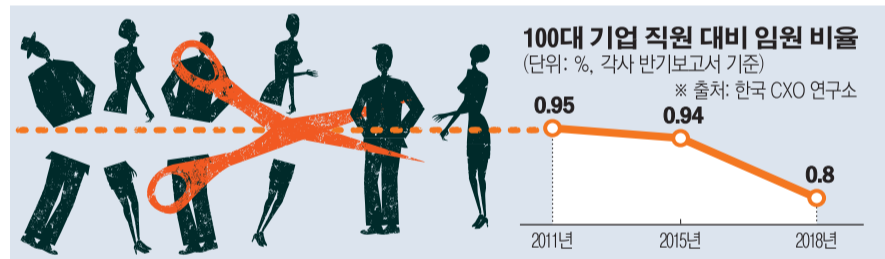
람은 소모품이다. 경력직들은 1년 이내에 50% 나가고, 3년 있으면 70%가 나간다. 5년이 되면 80~90%가 그만두는데 그 시간이 지나야 조직의 진정한 임원이 된다”고 털어냈다.

베이비붐 세대인 K 상무는 임원 정년이 멀지 않았다. 그에게 임원은 말 그대로 ‘임시 직원’이다. 그의 선배 한 명은 임원이 되자 가족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임시 직원이 됐으니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다.



김상원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사무국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짐 싸는 ‘별’들



“장기자산 아닌 단기부채 취급”

실적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임원 수 2015년부터 감소세 대기업도 ‘감원대상 1순위’로

“임원 주자장이 따로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곳곳에 빈 주차공간이 생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바로 새 임원의 차가 그 자리를 채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무의 전언처럼 ‘기업의 꽃’인 임원이 만개하던 시절은 지났다. 기업들이 경영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임원 규모를 줄이며 임원 급제 관문은 더욱 좁아졌다. 이에 더해 회사가 어려워지면 감축대상 1순위에 오르며 임원은 쥐기 쉬운 ‘꽃’이 돼버렸다.

일각에서는 “기업에 인재는 장기자산이 아니라 단기부채가 돼버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3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연령대 현황 분석’ 조사 결과 올해 임원 수는 지난해보다 1.4% 줄어든 6932명으로 집계됐다.

100대 기업 임원 숫자는 2010년(6600명)→2011년(6610명)→2012년(6818명)→2013년(6831명)→2014년(721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임원 수는 2015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힘을 받지 못하고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임원 수는 최고치인 2014년 대비 5년

만에 6.4%나 감소했다.

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경영 악화 등으로 이미 임원 구조조정을 했거나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비할 것으로 예상돼 2020년 100대 기업 임원 숫자는 올해보다 100명 정도 더 감소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CXO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직원 대비 임원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이 조직의 효율성 차원에서 임원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임원은 6843명이고 직원은 85만 2136명으로 집계됐다.

임원이 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계약직이라서 언제든 짐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임원들은 실적 부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연간 영업적자 1조 원이 예상되는 LG디스플레이도 고강도의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사업별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과 담당조직을 축소한다며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바로 임원이 감축대상 1순위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하자 기업들이 임원 숫자를 예전보다 다소 줄이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 효율성 및 조직 운용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임원이 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힘겨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고열량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0%대 금리 임박... 채권·고배당주·리츠에 돈 몰린다

0%대 초저금리 시대 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컴(정기적 수익)'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부터 미국을 선두로 인도·브라질 등 신흥국까지 속속 금리를 낮추면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1.50~1.75%로 기존보다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행(BOJ)도 이미 마이너스(-) 상태인 기준금리를 향후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기조가 지속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도 지난달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인하해 역대 최저 금리로 떨어졌다. 국민총생산(GDP) 성장률과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질금리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국내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금리 인하의 효과는 미흡하

韓銀 기준금리 1.25% 최저치 박스권 증시에 투자자 길 잃어

'금리+α' 추구 보수적 접근 안정·수익형 투자처 관심 집중

글로벌 기준금리 현황

국가	9월	현재
미국	1.75~2.00%	1.50~1.75%
유럽연합(EU)	-0.40%	-0.50%
브라질	5.50%	5.00% (역대 최저)
인도	1.35%	1.10%
한국	1.50%	1.25% (역대 최저)

다"며 "국내 경기 전반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떨어지지만 증시도 박스권 안에 갇히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자수익·배당·분배금 등을 통

해 '인컴'을 추구, 안정적이면서도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주목받고 있다.

이경수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리수익·이자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며 "유사 상품 중에서 이자와 같은 형태로 지급될 수 있는 상품이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채권, 고배당주, 리츠, 인컴펀드 등에 돈이 몰리고 있다. 채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설정액은 최근 3개월간(1일 기준) 6419억 원 늘었다. 또 지난달 30일 상장한 롯데리츠는 상장 직후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르는 등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센터장은 "최근 사건들로 ELS·DLS 등 '중위험-중수익' 상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한 곳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며 "4~5% 배당을 약속한 고배당주, 리츠 등이 대표적"이라고 짚었다.

이다원 기자 leedw@

TDF 수익률 상위 TOP6 (단위 : 억 원, % 기준 : 연초 이후)

펀드명	운용사	설정액	수익률
신한BNPP마음편한TDF2040(주혼-재간접)C-C-i)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51	19.15
한화LifePlusTDF2045(혼합-재간접)C-C-f	한화자산운용	52	17.78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자](주혼-재간접)C-C-i)	미래에셋자산운용	10	16.68
KB온국민TDF2050(주혼-재간접)A	KB자산운용	15	14.93
한국투자TDF알아서2040(주혼-재간접)C-F	한국투자신탁운용	50	14.61
키움키워드림TDF20301(혼합-재간접)C	키움투자자산운용	51	14.61

<타깃데이트펀드>

판 커지는 TDF 시장

생애주기별 투자 비중 조절... 올 설정액 두 배로

기대 수명이 늘면서 은퇴 이후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TDF 설정액(31일 기준)은 연초 이후 3405억 원 증가한 5701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5조 135억 원이 빠져나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현재 설정돼 있는 TDF는 총 69개로 순자산 규모는 6375억 원이다.

TDF는 생애 주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상품이다.

20~30대 때에는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40~50대에는 채권 위주의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자산을 배분한다. 주식과 채권 이외에도 해외주식, 부동산,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최창규NH투자증권 연구원은 "TDF는 은퇴를 대비한 자산배분 상품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위해 설계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시장의 성장과 동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20대 사회초년생이 본인의 은

퇴 시기를 30년 후로 잡는다면 2050년에 투자가 종료되는 'TDF2050'에 가입할 수 있다.

TDF 뒤에 붙는 숫자 '2030' '2040' 등은 가입자가 정한 은퇴 시점을 가리킨다.

상품별로는 연초 이후 '신한BNPP마음편한TDF2040(주혼-재간접)(C-C-i)'가 19.15%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어 '한화LifePlusTDF2045(혼합-재간접)C-C-f' 17.78%,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자](주혼-재간접)C-C-i' 16.68%, 'KB온국민TDF2050(주혼-재간접)A' 14.93%, '한국투자TDF알아서2040(주혼-재간접)C-F' 14.61%, '키움키워드림TDF20301(혼합-재간접)C' 14.61% 등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TDF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한국도 2017년 이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특히 투자심리 위축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 등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 시세차익은 덤

박스권 장세 투자 대안

대내외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0월 주식시장 거래 규모가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가 박스권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1일 2100선 회복에는 성공했지만 대외 악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뚜렷한 개선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준(FED)이 7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심리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투자자들이 고배당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배당주 투자는 배당률이 높은 기업 주식을 매수해 배당으로 수익을 내거나 배당 시즌에 주가가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

는 전통적인 투자 방법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12개월 선행 배당수익률은 2.7%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1.315%와의 격차는 큰 폭으로 벌어진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국제금리와와의 상대 수준도 개선되면서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8월 말 코스피 12개월 선행 배당수익률은 2.77%로 전 세계 주가지수의 배당수익률(2.74%)을 소폭 상회했는데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높은 배당수익률이 한국시장에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피 현금배당총액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증가했는데 기업

들의 배당 확대 움직임이 '한국시장은 저배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배당은 대부분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에서도 연말로 갈수록 한국시장의 높아진 배당수익률과 배당성장 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는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포스코, KB금융, BNK 금융지주, 동원개발, KT&G, 한국철강, KT, 신한지주 등이 꼽힌다.

이들 기업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배당을 줄인 적이 없는 기업들이다. 통상 3.7~5.7% 정도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도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분류된다. 이들 기업의 배당수익률은 연간 4%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뚝뚝,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www.childfund.or.kr

기업 투자활력 법안 통과될까... 내주 조세특위 가동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민주당 2% vs 한국당 3% 대립
기업상속공제제도·제로페이 소득공제 확대 등도 팽팽

먼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심사가 내주 시작된다. 여야는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 기업상속공제제도 등 경제활력 제고 법안을 놓고 ‘디테일’ 심사를 예고했다.

여야는 기업 투자활력 법안의 큰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두고는 팽팽선을 달리고 있다. 세법 개정안 중 제로페이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한 일부 내용은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우선 여야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상향할지, 2%로 올릴지를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금액을 고려해 2%로 확대하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3%로 늘려

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6월 제출된 이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6월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반년 가까이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도 잠들고 있다. 정부가 내수 진작책으로 6월 발표한 이 법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100만 원 한도 내에 현행 5%에서 1.5%로 내려주는 내용이다.

기업 투자 활력 법안 중 기업상속공제제도는 여야 견해차가 가장 큰 이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관련 요건도 완화하는 개편안을 제출했지만, 한국당에서 더 나아가 공제 대상(매출액 3000억 원 미만)과 공제 한도(최대 500억 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

억 원 등으로 확대하는 일부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대기업·최대 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이 법안은 1993년 할증률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나온 정부의 개편안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할증제 폐지는 물론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제로페이’ 사업이 태생부터 지속가능성이 없는 데다 잘못된 세제 지원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한국당에선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선별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현금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오늘 국회서 ‘끝장토론’

e법안 Zoom

피해구제·심사 방식 등 논의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출시됐다. 이후 17년 동안 1000만 병 가까이 팔리면서 산모와 영유아의 폐 손상과 사망 등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2011년에서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 알렸고, 2016년 검찰 전담수사팀이 관련자를 처벌하고, 2017년 8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시행됐다.

2011년 이후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만 6500명이 넘고 이 중 1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최근에는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의 박은정 교수 연구팀 연구 결과, 폐암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해 규모가 확산될 조짐

을 보이는 가운데, 참사 해결을 위한 ‘오부능선’도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월 18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기준 재정립, 구제기금의 전향적 지급, 책임자의 사과 및 배상 등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신장현(민주당), 정태욱(자유한국당), 이정미(정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 방향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방식 쟁점, 피해판정의 심사 방식 개선 등을 토론했 예정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태국 돈므앙 공항에서 주린 탁사라위짓 태국 부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의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아세안+3·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신남방정책 속도 ‘경제 세일즈’

아베 日 총리와 만날지 주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3일 출국해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까지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날 출국 전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은 환송을 나온 인사들에게 지난달 29일 별세한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와 관련해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아지셨음에도 자주 찾아드릴 수가 없었다”며 “기껏해야 근처에 가면 잠시 인사드리는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미·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세안 국가 정상들에게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첫 공식 일정으로 의장국 태국이 마련한 갈라민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4일 오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아세안+3의 협력 심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건설 등 여내 협력 지향점을 제시하고 기

여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태국 방문은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와의 만남 여부가 주목된다. 같은 기간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대신한 리커창 중국 총리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일각에서 기대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조우 자체에 관심이 쏠린다.

양 정상은 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10조 약속’ 이후 약 5개월 만에 정상회의에 다시 만나는 만큼 ‘10조 약속’보다 진전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최근 일왕 즉위식 계기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재확인된 것을 고려하면 한일 정상 간 정식 회담이 성사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정 상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대하는 성과 중 하나는 아세안 국가 대부분은 남·북한 모두와 수교 관계를 맺고 있어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진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소기업·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가 언제나 응원 하겠습니다

TAX 절세혜택
 납입부금은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가입장려금
 상해보험(2년), 경영자문, 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이용과 지자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로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이 실패할 때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를 빼지 않고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

2019 노란우산 희망&미래지킴이과정

소상공인 교육 안내

- ▶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 일정 : 2019년 6월~12월, 70회 교육(수시)
- ▶ 장소 : KBIZ중소기업인력개발원 (경기도 용인 소재)
- ▶ 내용 : 폐업지원 및 재기교육, 사업역량 강화 교육 등
- ▶ 혜택 : 교육비용 전액무료, 교육수당 5만원 지급 (80% 이상 수료자)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소상공인교육) 참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부동산담보소득과 법인기업의 대표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시간제 일자리, 질 낮은 비정규직만 늘었다

정부, 일·가정 균형 차원 장려...정규직 2년 새 10%P ↓ 시간제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낮고 유급 휴일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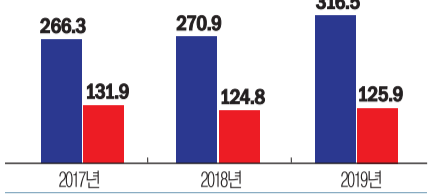
최근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만 짧을 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정규직' 비율이 최근 2년간 10%포인트(P) 가까이 축소됐다.

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중복집계를 배제한 시간제 근로자는 12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1000명(0.9%) 늘었다. 이들은 기간제, 파견·용역 등 다른 비정규직 근로형태와 겹치지 않는 순수 시간제로, 근로계

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한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포함)는 315만6000명이었는데, 나머지 189만7000명은 시간제이면서 다른 근로형태와 겹치는 비정규직이었다.

그런데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시간제 정규직 비율은 2017년 49.5%에서 지난해 46.1%, 올해 39.9%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시간제 정규직은 131만9000명에서 124만8000명, 125만9000명으로 정체됐지만, 시간제 비정규직은 266만3000명에서 270만9000명, 315만6000명으로 급증

전체 시간제 근로자·시간제 정규직 근로자 수 (단위: 만 명) * 출처: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 탓이다. 최근 2년간 늘어난 시간제 근로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셈이다.

그간 정부는 일·가정 균형 차원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해왔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높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 증가분(44만7000명) 중 여성은 33만8000명이었는데, 이들의 81.9%

(27만7000명)는 추가 취업 없이 그대로 일하길 희망했다. 고용부도 이를 근거로 "시간제 근로자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시간제를 선호하는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증가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반드시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간제 중 정규직 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인 시간제 일자리의 질도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는 점이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중복집계 포함)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퇴직급여 2.3%, 상여금 22.4%, 시간외수당 15.1%, 유급휴일 13.3%로 모든 근로형태 중 가장 낮았다. 평균 근무기간도 1년 9개월로 가장 짧았다. 직업별로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111

만8000명은 단순노무 종사자였다. 임금 지급 적용형태는 지급주기가 일정한 월급제와 연봉제 합계가 35.9% 불과했다. 나머지 시급제나 일급제 등이었다.

한편, 총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무자는 221만5000명(10.8%)으로 전년 동월(167만5000명, 8.4%)보다 58만 명(2.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여성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9.0%로 남성(12.2%)보다 3.2%P 낮았다.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차이는 전년(2.1%P)보다 1.1%P 확대됐다. 육아기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못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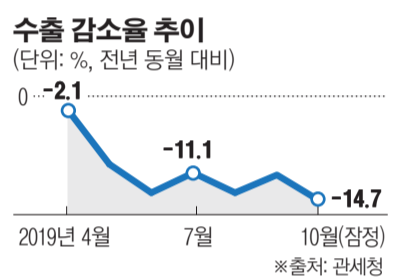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국공항공사, 페루 신공항사업 착수식
손창완(왼쪽 세 번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교통통신부(MTC)에서 열린 '쿠스코-친체로 신국제공항 PMO사업 착수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구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장폴베니벤테 쿠스코 주지사, 손 사장, 카를로스 아르투로 MTC 차관, 권평오 코트라 사장, 조준혁 주페루 한국대사. 연합뉴스

수출, 11개월째 뒷걸음 'U자 반등' 가능할까?

10월 수출 468억 달러 14.7% ↓
정부 "반도체 수출 회복 전망
내년 1분기 플러스 전환 기대"



지나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한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올해 들어서는 단 한 번의 플러스 성적 없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수출과 관련해 '상저하고(上低下高)', 'V자 회복'을 공언해왔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L'자를 그리고 있다. 이제 관심은 향후 회복 가능성이다. U자 흐름은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대외 여건의 우호적 변화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1분기 플러스 전환을 다시 공언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467억80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14.7%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1.7%를 시작으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 1월~2016년 7월 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이다.

정부는 올해 3~4월께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

언했지만, 수출 성적은 더 나빠졌다. 올해 6월부터 5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율이 계속됐으며 10월 수출 감소 폭은 2016년 1월 -19.6%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정부는 내년 1분기 플러스 전환을 다시 공언하고 있다. 정부가 수출 회복을 자신하는 근거는 반도체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본격적인 5G 통신의 도입과 PC 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침체기에서 벗어나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는 신차 출시 효과로 수출이 늘어나고 선박의 경우 국내 기업이 2017년에 수주했던 물량이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수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잡힐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OECD "한국 잠재성장률 2년 만에 0.4%P 하락"

"36개국 중 하락폭 3번째로 커...노동력 확보·기술경쟁력 제고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가파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절반의 잠재성장률이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3일 OECD가 단일 경제모델로 추산한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7%로 2017년(3.1%)보다 0.4%P 내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곧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파르다. 최근 2년간 한

국보다 하락 폭이 컸던 나라는 36개국 가운데 터키(5.6%→4.9%)와 아일랜드(5.3%→3.7%)뿐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18개국은 잠재성장률이 올랐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5%였으나, 2000년대 초 중반 4~5%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2008년(3.9%) 이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단기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표적이다.

바스 배터리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

은 최근 발간한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잘못 진단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선 단계 경기 부양보다 생산성 향상,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 노동 기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문턱을 낮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은 재정을 푸는 건 단기적이므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관련 산업을 육성해 기술경쟁력, 나아가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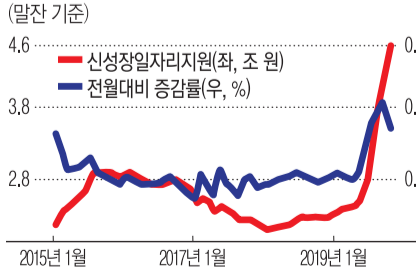
세종=김지영 기자 jye@

지난달 신성장일자리 금중대 4.6조 역대최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중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 실적은 4조 6000억 원에 육박하며 6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세액공제 등 제도개편에 따라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관련 대출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중대 잔액 역시 15조 원에 바짝 다가서며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이 최근 설비투자과 소재부품 기업을 지원키로 한 데다, 기술형 창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편에 나선 바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중대 신성장 일자리 지원 실적 (말잔 기준)



2월 한은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금중대 실적규모는 전월 말보다 2106억 원 증가한 14조773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8월 14조9445억 원 이후 최고치다.

금중대 실적은 4월 말 13조6518억 원으로 2015년 7월(13조1341억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3665억 원 증가한 4조5972억 원을 기록해 6달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달에는 5154억 원 급증해 6달 연속 사상 최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제도개편을 단행한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현대경제연구 "내년 중 성장률 5%대 전망"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엔 5%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2020년 중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에서 "내년 중국은 소비, 투자, 수출 등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6%대 미만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6%로 2분기(6.2%)에 이어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소비 활력 수준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 증가율은 9월 7.8%로 연초(3월 8.7%) 수준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중국경제가 5%대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부터 경제성장률 6%대를 목표로 하는 '바오류'를 지속했으나, 최근 대내외 변수가 확대되면서 바오류 시대도 저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내년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도 많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2019년 하반기 들어 중국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부채 확대에 따른 부동산 버블붕괴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동력은 내수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인해 약해졌고, 비금융기업부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33%포인트 급증한 것 또한 중국에는 악재다.

중국경제의 성장을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부품과 소재, 장비의 상호 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대 기자 yeongdai@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MAKE_금융거래를 더 간편하게 만들고
MORE_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MOST_가장 앞서나가는 혁신적 모바일 서비스

Liiv M,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합니다



* Liiv M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19-1793-1호(2019.10.25) | 광고물 유효기한 2020.04.30까지

***b KB 국민은행**

'150兆 실탄' 쥐고도... '코끼리 사냥' 주저하는 버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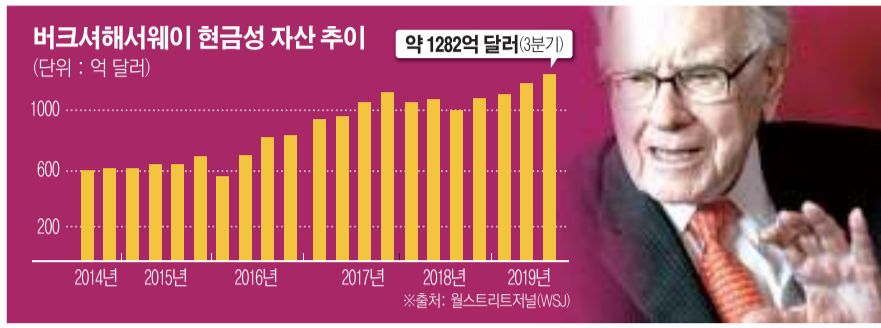
3년 동안 대형 인수·합병 전무 버크셔, 역대 최대 현금 쌓여 주가 거품·실패 경험 해석 분분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사진)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딜레마에 빠졌다. 3년째 대형 인수·합병(M&A)을 뜻하는 ‘코끼리’ 사냥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창고에 쌓인 돈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버크셔해서웨이는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9월 말 기준 보유한 현금 및 단기국채 등 현금성 자산이 1282억 달러(약 15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36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23.7% 급증했다. 작년 말 1119억 달러, 올해 1분기 1142억 달러, 2분기 1224억 달러 등 꾸준히 늘어나던 버크셔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은 3분기 7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도 역대 최대규모를 찍게 됐다.

버핏 회장이 수중에 막대한 현금을 쥐고도 좀처럼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버핏 회장의 투자 의지가 꺾였다고 보거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핏 회장은 언제나 ‘코끼리’를 사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



다. 작년 말 발표한 ‘연례 주주 서한’에서도 그는 “2019년에도 계속해서 대형 M&A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런 거대 인수가 능력에 대해 적는 것만으로도 내 맥박이 뛰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버핏 회장의 의욕과는 달리 실제 버크셔해서웨이의 움직임은 굉장히 굼뜰 상태다. 버핏 회장은 2016년 우주 항공용 금속 부품 제조업체 ‘프레스전캐스트파츠’를 320억 달러에 사들인 뒤로 대형 M&A 시장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버크셔해서웨이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치주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기 투자를 펼치는 버핏의 투자 스타일상 현재 주가에 거품이 겹쳤다고 판단, 투자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버핏의 오점’이라 불리는 식품업체 크래프트하인즈에 대한 투자 실

패의 경험이 투자에 소극적이 된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크래프트하인즈는 버크셔해서웨이가 2013년 브라질 사모펀드 3G캐피탈과 함께 인수한 ‘캐첩의 원조’ 하인즈, 치즈로 유명한 식품업체 크래프트가 2015년 합병해 재탄생한 식품업체다. 그러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으로 크래프트하인즈는 한동안 적자에 시달렸고, 이 때문에 1대 주주인 버크셔해서웨이는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실적이 개선되면서 투자 수익에 일조하고 있다.

CFRA리서치의 캐시 셰이퍼트 애널리스트는 “버크셔는 이런 풍부함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며 “버크셔는 투자 의욕이 지금 매우 강한 상태이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돈을 손에 쥐고 있기만 하면 전반적인 투자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美 대선 1년 앞, 더 갈라진 민심

“세대·인종·남녀갈등 심화... 모순·단절 한꺼번에 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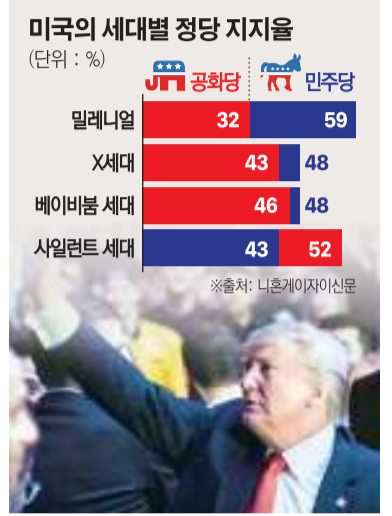
2020년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3년 전 ‘이단아’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의 분열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안고 있는 모순과 단절이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금까지의 비공개에서 공개로 돌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탄핵 조사 절차결의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민심은 트럼프 탄핵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전날 공동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탄핵 찬성 비율은 49%, 반대는 47%를 각각 기록했다. WP는 유권자들도 과거에 비해 당파적으로 분열이 더욱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내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든 이런 분열을 치유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닛케이의 내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세대교체’가 일어난다면 좌파로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1981~96년 출생)’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20년에는 미국 최대 인구층이었던 베이비붐 세대(1946~64년생, 7130만 명)를 밀레니얼 세대(7280만 명)가 처음으로 앞지르게 된다.

학자금 대출의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취업난에 직면하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된 밀레니얼 세대는 부유세 신설과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등의 정책을 내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에서도 좌파 성향의 후보들에게 끌리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59%로, 공화당(32%)의 두 배에 육박한다. 반대로 노인층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정책과 맞물려 인종 간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9월 중순 워싱턴 D.C.에서는 흑인 약 150명이 백인우월주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월 초 플로리다주에서도 전과자들에게 대한 투표 금지가 인종차별이라며 항의 시위가 열렸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가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조건을 강화한 것이 시위 계기가 됐다. 전과자 중에는 히스패닉과 흑인 등 소수 인종이 많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분노한 홍콩 시민... 중 관영 신화통신 습격. 홍콩 완차이에 위치한 중국 관영 신화통신 아시아태평양지사 건물 입구 유리문이 2일(현지시간) 홍콩 시위대의 습격으로 파손돼 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홍콩에 대한 통제권 강화 방침을 밝히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이 이날 신화통신 사무실을 공격했다. 시위대는 유리문을 깨고 로비에 불을 질렀다. 홍콩/AP연합뉴스

'178년 역사' 英 토머스쿡, 차이나머니가 삼켰다

중 푸싱그룹, 166억에 브랜드 인수... 해외 사업은 제외시켜

'178년 역사'를 자랑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 토머스쿡이 9월 파산했지만 브랜드는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중국 푸싱인터내셔널그룹 산하 여행 회사인 푸싱여유문화(영문명 Fosun Tourism Group)가 토머스쿡의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1100만 파운드(약 166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인수하기로 한 자산에는 토머스쿡 상표와 산하 호텔 브랜드인 카사쿡과 쿡스클럽, 인터넷 도메인, 소프트웨어 앱, 명칭 라이선스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푸싱은 토머스쿡의 해외 자산과 사업은 이번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중 푸싱은 여행업계에서 유서 깊은 토머스쿡의 이름값만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쉐젠농 푸싱그룹 회장은 “이번 브랜드 인수는 우리 그룹이 토머스쿡의 광범위한 브랜드 인지도와 중국 해외여행 성장세를 바탕으로 관광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토머스쿡의 브랜드 가치를 믿어왔다”고 밝혔다. 푸싱은 프랑스 클럽메드를 소유하고 있다.

토머스쿡은 17억 파운드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린 끝에 9월 파산했다. 당시 토머스쿡 대주주인 푸싱그룹은 9억 파운드의 구제금융을 마련했지만 채권단이 토머스쿡 측에 2억 파운드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토머스쿡이 영국 정부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결국 파산하는 신세가 됐다. 토머스쿡의 파산으로 2500개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또 영국 정부는 토머스쿡 상품을 계약해 여행 중이던 15만 명이 허공에 붓 뜨게 되자 전 세계 등을 동원해 긴급 수송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파산 후 주주 뒤인 지난달 초 토머스쿡 경쟁사인 헤이스트래블이 영국 내 555개 오프라인 지점을 전부 인수하기로 하면서 발등의 불을 껐다. 다만 헤이스는 토머스쿡 브랜드를 인수한 것은 아니며 지점들도 약 600만 파운드라는 헐값에 사들였다. 헤이스는 당시 토머스쿡 지점 인수 이후에도 온라인 여행사라는 자사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시총 2334兆' 아람코 12월 상장

사우디 정부, IPO 계획 승인... 내달 11일 증시 입성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가 오랜 기다림 끝에 '세계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 닳을 올렸다.

사우디 자본시장청(CMA)이 3일(현지시간) 아람코 IPO 계획을 승인하면서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CMA는 이날 성명에서 “이사회가 아람코의 (국내 증시) 등록과 일부 주식 발행 신청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공표한다”며 “이번 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며 아람코의 IPO 투자설명서(IPO Prospectus)는 청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람코는 12월 초 사우디 리야드의 타다울거래소에서 상장될 예정이며 내년 해외증시 IPO도 추진하고 있다. 아람코는 당초 자사 기업가치를 2조 달러(약 2334조 원)로 봤지만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IPO 성공을 위해 1조 6000억~1조 8000억 달러로 가치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람코는 타다울거래소에서 전체 지분의 1~2%를 상장해 200억~4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아람코는 5년 전 중국 알리바바그

룹홀딩이 세운 25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IPO 기록을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아람코의 국내증시 상장은 12월 11일 이뤄질 전망이다.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처음으로 추진한 사실을 공개한 지 3년여 만에 아람코의 IPO가 현실화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람코 IPO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무함마드 왕세자의 경제개혁 '비전2030' 플랜의 핵심에 있다. 이번 IPO를 통해 사우디 국부펀드의 화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글로벌 은행들도 '세기의 IPO'가 될 아람코 상장엔 온 힘을 쏟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씨티그룹과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톱 은행 20곳 이상이 이번 IPO 주관사로 선정됐다.

아람코는 전 세계 산유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지난해 순이익은 1111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익을 냈으며 애플(595억 달러)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307억 달러), 엑손모빌(208억 달러)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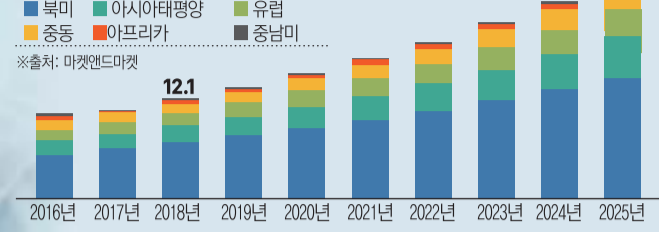
‘게임 체인저’ 드론, 현대戰 개념을 바꾸다

저비용·고효율 군사 전략 수단
약소국서도 손쉽게 활용 가능
세계 각국 첨단기술 개발 줄이어
“공격용 드론 확산은 시간 문제
방어 전략 등 위협 대비해야”



지역별 군사용 드론 시장 규모 추이

(단위 : 10억 달러) *2019년 이후는 예상치



도하는 건 아직 미국이지만 후발주자들이 바짝 뒤쫓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드론 제조 및 개발 강국이다. 지난달 이스라엘은 드론 편대를 띄워 레바논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거점을 강타했다. 이란도 드론 강자로 떠올랐다. 이란은 비대칭 전쟁 우선 방침에 따라 공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 및 무장 드론 개발에 뛰어들었다. 기존의 드론을 개조할 뿐 아니라, 2015년 자국 영공에서 격추된 미국 드론에서 최신 기술을 추출해 첨단 드론까지 제작했다.

공격용 드론의 주무대는 중동이지만 확산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7년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드론 300대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건설에 합의하는 등 소형, 저가 드론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중국도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

드론 부상에 경고도 잇따른다. 프랑스 전략연구소는 9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군은 공동 연구를 통해 방어전략을 개발하는 등 드론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터널에서 나타난 쿠르드족 대원을 터키 정찰 드론이 포착했다. 그들이 트럭에 탄 약을 옮겨 실는 동안 드론은 F-16에 좌표를 전송했다. 몇 초 후 거대한 화염이 일어났다. 연기가 걷히자 폭격으로 생긴 거대한 구멍만이 남아 있었다.”

최근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 민병대(YPG)를 몰아내기 위한 ‘평화의 샘’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감시·정찰·무장 드론을 투입했다. 작전 초기 드론을 날려 시리아 국경을 따라 맹공을 퍼부었다. 자국 군대가 들어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터키가 드론 공격을 통해 수십 년간 벌여온 험겨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것도 비용과 자국 병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터키는 YPG가 자국 내 분리주의 무장 단체 쿠르드 노동자당(PKK)의 본파라고 여기고 있다. PKK는 터키 내에서 쿠르드

족 자치를 위해 30년 넘게 투쟁해 왔다. 드론이 전쟁 지형을 바꾸고 있다. “드론이 현대전(戰)의 양상을 바꿀 것”이라던 일부 전문가들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변화를 톡톡히 보여준 또 다른 예가 바로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폭격이었다. 어두컴컴한 새벽, 사우디 석유시설 2곳에 25개 드론 편대와 미사일이 날아들었다. 세계 최대 석유기업 아랍코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끝에 원유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국제 유가는 요동쳤다. 비용 최소화·피해 극대화의 전형을 보여줬지만 아직도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 예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선언했지만 미국과 사우디는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저렴하고 운용이 간편한 데다, 레이더 감시망을 피하기도 쉬운 드론이 전쟁 한복판에 등장하면서 강대국이 절대 우위를 점하

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선진국의 전유물 이던 드론은 이제 약소국은 물론 이슬람국가(IS)같은 비국가조직도 손쉽게 쓸 수 있는 무기가 됐다. 2002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외곽에서 알카에다 공격에 처음으로 드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예멘 후티 반군도 감시 및 정찰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올해 초 예멘 정부군 퍼레이드를 목표로 한 정밀 공격에도 사용하는 등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라펠 마르쿠스 킹스클리퍼던 전장연구학 교수는 “드론과 관련,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술 전술 적응과 대응 주기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드론 확산이 전쟁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

들고 있다는 평가다. 마르쿠스 교수는 “군대가 드론, 정찰 기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독점하는 시대가 끝나면서 충돌 무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쟁이 테러 단체 등 무장조직에 의한 비정규 국지전으로 전개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이런 이유로 지정학적 불안은 확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드론을 더 자주 활용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 위험성이 증가했다. 예멘 내전에서 반군 후티가 드론 공격을 펼치면서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던 갈등이 연장되기도 했다.

드론의 가치가 빛을 발하면서 개발 경쟁도 치열해졌다. 드론 군사 기술 영역을 주

택배, 드론 배송시대 초읽기

아마존 등 배달 실험 비행 본격화

상업용 드론은 어디까지 왔을까. 미국 기술기업들이 미 정부의 승인을 받고 드론 배달 실험 비행에 본격 나서면서 드론 배달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wing(Wing),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드론 배달 실험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알파벳의 드론 사업부 wing은 지난달부터 버지니아주 크리스천스버그에서 실험 비행을 시작했고, 우버 역시 미 연방항공청

(FAA)의 실험 비행 승인을 받아 샌디에이고에서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상품을 배달하는 실험 비행을 하고 있다. 한발 앞선 곳도 있다. 미국 대형 화물운송업체 UPS는 지난달 FAA로부터 업계 최초로 의약품 배달하기 위한 드론 배송 승인을 받았다. 3월부터 본사가 있는 조지아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의약품 배송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의약품은 시작으로 다른 물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FAA는 상업용 드론 판매가 2016년 60만 대에서 2020년 270만 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론 배송 시대를 앞두고 WSJ는 각 사의 드론을 설계, 이륙, 비행, 착지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다.



아마존 프라이م 에어 드론

① **아마존**: 아마존의 프라이م 에어 드론은 고객센터에서 상품을 신고 출발해 직접 땅에 착륙한다. 6각형 설계로 수직형 헬리콥터 이착륙 모드와 수평형 비행 모드 사이를 전환할 수 있다. FAA가 허용하는 최대 높이인 400피트(120m)까지 이륙, 최대 15마일(24km)을 왕복할 수 있고 30분 이내에 배달을 완료한다.



알파벳 자회사 wing이 개발한 배달 전문 드론

② **wing**: 작은 비행기 모양으로 두 개의 날개가 각각 3피트 이상 뻗어 있고, 각 날개에는 프로펠러가 장착돼 있다. 총 14개의 프로펠러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특별 설계됐다. 최대 200피트까지 올라간다. 12마일 이내의 거리를 10분 안에 배달하는 게 목표다. 직접 땅에 착륙하지 않고 약 24피트 높이에서 밧줄로 짐을 땅에 내린다.



우버 음식배달 전문 드론(개발 중)

③ **우버**: 땅에 착륙한 드론에 직원들이 상품 바구니를 직접 끼워 넣으면서 배달이 시작된다. 드론이 직접 착륙해 짐을 자동으로 내린다. 에어로봇(AirRobot)이 제작했으며 비행 속도가 느리고 비행거리 제한이 있다. FAA가 허용하는 최대 높이인 400피트까지 올라, 3마일의 거리를 7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 1588-3570

DLF 절반 이상 '불완전판매'... "배상률 70% 넘을 수도"

은행 투자권유 내규 위반 추가
전·현직행장 등 중징계 가능성
이달 분쟁 조정·종합대책 수립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 안할 듯

금융당국 DLF 관련 향후 일정

	10월 말	11월 1일	11월 초	11월 중(전망)	11월 중(전망)	연내(전망)	내년 초(전망)
내용	DLF 불완전판매 관련 하나·우리 은행 검사 종료	금감원 합동 현장 검사 종료	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검사 결과에 대한 두은행의 의견·질의서 받아 자체 심의 거친 뒤 분쟁조정국·제재 심의국에 각각 전달	기존 분쟁조정 조사 내용에 검사국 결과 반영해 분쟁조정 위원회 개최(배상비율 산정)	두 은행과 법률적 논의 거쳐 (대심제 전망) 제재 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제재양정)	제재심의위원회 자본시장 조사심의 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논의·의결
담당	금감원 일반 은행 검사국	금융위·금감원	금융위·금감원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금감원 분쟁조정국	금감원 제재심의국	금융위 자조심·증권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합동 현장 검사가 끝난 가운데 조사 결과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당초 알려진 전체 판매의 20% 안팎이 아닌 최소 50%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DLF 상품 설계와 판매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 하면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20% 정도 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달 1일 합동 현장

검사가 완전히 끝난 가운데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비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 지난달 1일 중간 결과 때는 서류상으로만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폈다. 하지만 이후 현장에서 추가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은행 내규 위반 등이 발견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투자자 권유 원칙을 담은 내규가 있다"며 "은행 내규 위반 까지 더하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나 판매 금융사의 내부 통제 작동 여부 등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데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의 배상책임 마지노선으로 작용해 왔던 70%를 넘어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고객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고수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영업점에 제공했고, 은행들이 기초금리 하락 상황에서 신규 판매를 멈추지 않은 점 등 본점 차원의 문제점도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LF 투자자들은 상품 판매 자체가 '사기'라며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들과 은행 기관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도 관심사다. 손실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

자가 양산됐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사 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지정구하나은행장의 지시로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지 행장이 자료 삭제까지 지시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합동 현장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검사 결과 발표도 나올 전망이다. 검사 결과 발표 때는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 금지는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최소투자 금액 상향이나 투자자숙려제, 펀드리플제 확대 적용 등의 방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막바지 의견 조율 중이다. 김범근 기자 nova@

KB카드,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 모델 개발

한국기업데이터와 업무협약



이동철(왼쪽) KB국민카드 사장과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3일 카드 결제 정보와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1일 서울 중로구 본사에서 기업 신용평가 전문기업 한국기업데이터(KED)와 관련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과 송병선 KED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양사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 모델 개발과 상품 출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상품 판매·유통 △관련 신규 사업과 상품 개발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KB국민카드는 가맹점 카드 결제 정보와 제휴 금융기관 개인·소호(SOHO) 신용정보, 공공기관 공개 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해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평가 모델은 가맹점 실적 모델

과 신용정보와 비금융 대안 정보를 활용한 일반 신용 모델,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가 보유한 거래 실적 정보 중심의 그룹 실적 모델 3종 결합 구조로 만든다. 또 인공지능 기술인 기계 학습(머신 러닝)을 추가해 더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과 신용평가 예측력 향상을 구현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시중銀이 예금금리 못 내리는 까닭은

새 예대율 규제·고객 이탈 우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업계 눈치만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하락에도 '예금금리 인하' 카드를 못 꺼내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는 오름세를 유지해 예대 금리 차 확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금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애초 국내 시중은행은 지난주 예금금리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새 예대율 규제와 고객 이탈 우려 등으로 예금금리 인하 결정을 미루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은 7월 기준금리 인하 직후 2주 내외로 예금금리 0.25~0.3%P 인하를 단행했다. 예금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이유는 내

년부터 적용될 새 예대율 규제와 고객 이탈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대율은 '은행 총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로 시중은행은 100%가 기준이다. 새 예대율 규제방안은 가계대출에 15%P 가중치가 부여되고 기업대출은 15%P 가중치를 낮췄다. 은행으로서 연말까지 예금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예금금리 인하는 곧 고객 이탈로 이어지므로 어느 한 곳 선불리 나설 수 없는 환경이다. 이 밖에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거래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돼 고객의 은행 갈아타기가 더 쉬워진 것도 변수다. 다음 달 18일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 오픈뱅킹 서비스가 적용되면 고객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은 오히려 오픈뱅킹 서비스 연계

우대금리 혜택을 내세워 고객 쟁탈전에 나섰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는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신한과 KB국민, 우리, KEB하나, 농협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평균 2.55~4.24%로 0.058~0.28%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 인상 기준은 금리 기준인 금융채금리가 8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고,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실질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지속되고 있다. 이 밖에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국제발행 확대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예고로 당분간 채권시장금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 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우리금융그룹

We Believe 우리은행

어떤 노후를 상상해도 시작은 시니어플러스

시니어플러스

우리패키지 통장·예금·적금



4대연금 신규고객
EVENT
기간: 2019.07.01~12.31

- 경품 : 안마의자(250만원 상당) 5명, 공기청정기(40만원 상당) 20명 외 150명
- 대상 : 4대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보훈연금을 2회 이상 신규 이체한 고객 대상 추첨
- 당첨자 발표 : 2020년 2월 중 우리은행 홈페이지 - 이벤트 게시 예정 / 개별 안내

▶ 해당 이벤트의 진행 및 상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이벤트를 참고하십시오. ▶ 기간: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금 조달을 위한 담보 및 신용평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금융당국 승인) 2019.07.01

앞치락뒤치락... 글로벌 전자업계, 치열한 점유율 경쟁

반도체 인텔에 밀린 삼성, 대만 TSMC에 추월당해
생활가전 LG,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 넘어 1위 도약
스마트폰 화웨이, 무역분쟁 여파 부진... 中시장선 약진

글로벌 전자기업들의 순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제품과 기술 변화 속에 기업들은 경쟁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 부문은 3분기 매출 17조5900억 원, 영업이익 3조5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23.4%, 영업이익은 70.9%나 감소하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도 추월당했다. TSMC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79억 대만달러(약 4조1300억 원)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TSMC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반도체보다 1조 원 가까이 많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TSMC의 영업이익은 2485억 대만달러(약 9조5100억 원)로, 삼성 반도체(10조5700억 원)를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인텔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인텔은 3분기 매출 192억 달러(약 22조3200억 원), 영업이익 64억 달러(약 7조4400억 원)를 기록하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렸다. 삼성전자는 2017년 2분기에 반도체 사업 매출에서 처음으로 인텔을 앞지르면서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 다시 권좌를 내준 뒤 지금

전자업계, 주요 점유율 경쟁 현황

업계	현황
반도체	TSMC, 삼성전자 점유율 추월 삼성전자, 인텔과 격차 벌어져
스마트폰	- 일본 시장: 삼성전자와 애플 약진 - 유럽 시장: 삼성전자 1위·화웨이 미국 제재로 주춤 유럽서 부진한 화웨이, 중국 시장 강자 도약 - 인도 시장: 샤오미·화웨이 등 중국 업체 강세
가전	LG전자, 월풀 이익 넘어 1위

까지 되찾지 못하고 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을 넘었다. H&A(생활가전) 사업본부는 3분기 매출액 5조3307억 원, 영업이익 4289억 원을 달성했다. 월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0억9000만 달러(약 5조9800억 원), 3억5800만 달러(약 4200억 원)다.

LG전자는 매출에서 월풀에 뒤처졌지만, 영업이익은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LG 전자 H&A 사업본부는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의 모두 월풀을 넘어선 바 있다. 전자업계 지각변동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럽 시장에서 화웨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9%포인트 상승한 점유율 24.9%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선두에 오른 삼성전자(32%)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다. 2분기엔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화웨이 점유율이 19%에 머물렀다. 화웨이가 부진한 사이 삼성전자는 전 분기보다 3%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 중저가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시리즈가 흥행한 영향이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발표 후 유럽 및 중남미 시장에서의 판매량 하락이 가시화되자, 화웨이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 시장에 역량을 집중했다. 화웨이의 중

국 점유율은 지난해 25%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 상반기 31%까지 상승했고, 미국 제재가 시작된 후 8월에는 41%나 올랐다. 자국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일본 시장에서도 판도 변화가 조심스럽게 예고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시리즈의 흥행에 힘입어 올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6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 애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LG전자도 전략 스마트폰 G8X 씽큐(국내명 V50 씽큐)를 들고 2년 만에 일본 스마트폰 시장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실적, 점유율 싸움이 치열해진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기술이 상향평준화됐고, 산업 트렌드 변화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잘못된 경영판단과 순간의 실수로 고꾸라질 수 있는 긴박한 산업 생태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한영대 기자 yeongdai@

현대기아차, 유럽 점유율 8%대 회복

9월 판매량 10만대... 6.7% ↑
 현대 'i시리즈' 기아 '스포티지' 친환경 모델·소형SUV 인기

현대차그룹이 유럽 시장에서 1년 만에 점유율 8%대를 회복했다. 3일 유럽자동차제조회사(ACEA)에 따르면 9월 자동차 판매량은 현대차 5만 601대(4.1%), 기아차 4만9410대(4.0%) 총 10만11대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7% 증가한 규모다. 현대차의 'i시리즈'와 기아차의 '스포티지' 등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가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8월 코나 하이브리드 판매가 본격 시작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점유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9월 유럽연합(EU) 소속 28개국에서 점유율 8%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8.6% 이후 12개월 만에 점유율 8%대를 회복한 것이다. 같은 시점 현대차그룹의 순위는 폭스바겐그룹(20%), PSA그룹(16.5%), 르노그룹(9.7%)을 이은 4위였다. 유럽계 그룹을 제외한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토요타그룹(5.6%) 등 일본 업체보다 많이 팔렸고, BMW그룹(7.9%)과 다임러그룹(7.9%)도 앞섰다. 폭스바겐그룹은 점유율이 8월 27.4%에서 떨어졌다. 이 중 폭스바겐은 판매량이 9월 11만556대로 전월(12만4404대)보다 크게 줄면서 점유율도 한 달 사이에 11.9%에서 9.2%로 내려섰다. 아우디 판매량은 5만7973대에서 4만1765대로 감소했고 점유율은 5.6%에서 3.3%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의 영향으로 디젤 모델 비중이 높은 완성차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1일 현대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서 패션모델들이 현대자동차와 중국 친환경 패션 브랜드 '리클로딩 뱅크'가 공동 제작한 자동차 시트가죽 업사이클링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업사이클링 의상과 함께 공개한 소형 SUV 전기차 '엔시스 EV'는 4일 중국에서 출시한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호평 쏟아진 'LG 씽큐'... 북미 공략 청신호

“듀얼 스크린, 멀티태스킹 최적”
 “합리적 가격에 내구성도 우수”

LG전자가 1일 북미 시장에 출시한 LG G8X 씽큐(국내명: LG V50S 씽큐)와 LG 듀얼 스크린에 대한 외신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LG 듀얼 스크린이 북미 시장에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인 북미 공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게 LG전자 측 설명이다. 미국 유명 매체 포브스는 “LG G8X 씽큐의 뛰어난 멀티태스킹 능력은 미니 노트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며 “실용적이고 합리적 가격에 내구성까지 갖춘 제품”이라고 극찬했다. 또 “LG 듀얼 스크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할 때, 조작 버튼이나 손이 게임 화면을 가리는 일이 없다”며 듀얼 스크린이 모바일 게임에 최적화돼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는 “LG G8X 씽큐와 듀얼 스크린의 멀티태스킹 성능은 지금



까지 사용해 본 모바일 제품 중 최고”라고 호평했다. 또 LG전자가 LG G8X 씽큐에 헤드폰 잭을 유지한 것을 들며 “LG전자는 최고의 스마트폰 오디오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IT 매체 지디넷은 “LG G8X와 듀얼 스크린을 사용해 본 결과, 경쟁사의 플래그십 제품보다 더 낮은 가격을 갖췄지만, 생산성은 훨씬 높은 플랫폼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IT 매체 테크레이더는 “듀얼 스크린의 힌지는 매우 견고해 내구성에 대한 걱정이 없고, 어떤 각도에서나 고정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며 높은 완성도에 대해 호평했다. 송영록 기자 syr@

“국내 ESS 화재 안전기준 미흡”

해외 안전인증기관 보고서
 “관리·예방 체계 강화해야”

국내에서 잇따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는 다른 나라보다 미흡한 안전관리가 주요 원인이라는 해외 전문기관의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품질 인증·위험 관리회사인 디엔브이젤(DNV GL)은 ESS 화재와 관련해 화재 1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한 뒤 보고서를 냈다. 제3의 외부 안전인증기관이 ESS 화재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SS 화재 관련 보험사의 의뢰로 진행됐다. DNV GL은 이 보고서에서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시스템이 미흡해 작은 결함으로 인한 사소한 오작동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제조업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작은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레논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사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한국의 안전기준과 국제 안전기준 간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이런 차이(한국의 안전기준 미흡)가 사소한 오작동을 더 빈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고장이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 ESS 개발회사들이 안전 모니터링, 화재 예방 체계를 수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국내에서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2년여간 ESS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건이다. 특히 지난달 님새 사이에 경남 하동(10월22일), 경남 김해(10월27일)에서 2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송영록 기자 syr@

“폐플라스틱 민관학 공동 대응” SK종합화학, 친환경 포럼

SK종합화학은 1일 워커히 호텔 아카데미에서 플라스틱 패키징 소재 친환경 포럼을 열었다.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환경 문제 해결을 논의한 자리다. 이번 첫 포럼에서는 친환경 포장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60여 개 기업·정부기관·학계에서 170여 명이 참석했다. SK종합화학 관계자는 “플라스틱 소재 사용량을 저감하고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거나 분해되어 없어지는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이에 대한 정부 및 학계의 정책·기술 지원 등 민·관·학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각계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기술과 재활용이 용이한 개선 기술 등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 기술들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복합재질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열분해·가스화 기술과 생분해 기술 트렌드도 공유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시장 포화인데... '보이콧 재팬'에 '보잉 리스크'까지 추락하는 LCC, M&A 속도 내나

항공업계, 격랑 속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잇단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다.

최근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실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LCC들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737NG(넥스트 제너레이션) 결합 사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동체 균열이 추가로 발견돼 운항이 중단될 경우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LCC 역사를 보면 조만간 한국에도 인수 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 열풍이 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40여 년 전인 1978년, 미국 항공업계에 대한 변혁이 일어났다. '규제완화법'이 통과되면서 오랫동안 항공산업을 옥죄고 있던 규제는 모조리 없어지고, 항공사 설립은 물론 운임 결정까지 모두 시장에 맡기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경쟁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항공사들은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1980년대에만 무려 100여 개가 늘어났다. 과다경쟁이 불가피했던 1990년대 들어서는 결국 '규모의 경제'에서 살아남지 못한 항공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100곳에 가까운 항공사들이 파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항공사 간 M&A가 본격화됐다.

당시 상황은 미국의 축소판인 우리 항공 시장의 가까운 미래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국적의 항공사는 대형항공사(FSC), 소형항공사, 지역항공사, 저비용항공사(LCC)로 구분되며 총 70개에 달한다.

반면 미국 면적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우리나라 항공사 수는 8개, 첫 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LCC까지 더하면 11개에 이른다. LCC만 비교해보면, 미국(9)과 한국(9)의 숫자가 같아지는 셈이다.

땅덩어리는 좁고 항공사 수는 많다 보니 국내 항공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를 테면 인천-괘 노선의 경우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 노선에 비행기를 띄우고 있으며 그 외 부산, 무안 등 지방발 노선까지 더하면 초과열 경쟁 상황이다.

여기에 '한일 관계 악화'라는 악재가 더해져 일본 노선 비중이 평균 30%에 달하는 LCC들은 줄줄이 적자다. 설상가상으로 결합 발견에 따른 무더기 운항 중단이라는 '보잉 리스크'까지 불거져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때아닌 한파를 견뎌내고 있다.

아시아항공 매각을 계기로 국내 항공업계, 특히 LCC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1990년대 과다경쟁이 극심했던 미국에서는 20세기 최대 항공사이자 미국의 상징

지역	연도	사건
미국	1991	팬암항공 파산
	2001	트랜스월드항공(TWA), 아메리칸항공에 매각
	2008	노스웨스트항공, 델타항공에 흡수
	2010	콘티넨탈항공, 유나이티드항공에 인수
유럽	2013	US에어웨이즈, 아메리칸항공에 인수
	2004	KLM, 에어프랑스에 매각
	2014	알리탈리아, 에티오피아항공에 지분(49%) 매각
파산 및 운항 중단 항공사		게르마니아, 아주르에어, 스카이워크, 스몰플레인항공 등

100곳 파산 M&A 본격화됐던 1990년대 美 시장 축소판 日 노선 많은 LCC, 적자에 보잉기 결합 더해 때아닌 '한파' 아시아항공 매각 기점으로 LCC 중심 시장 개편 가능성

이었던 팬암항공이 1991년 파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역사는 길지만 오랜 적자를 견디지 못한 트랜스월드항공(TWA)이 2001년 아메리칸 항공에 매각됐다.

또 2008년에는 노스웨스트항공이 델타 항공에 흡수됐으며, 2010년 콘티넨탈항공은 유나이티드항공에 인수됐다. TWA를 품은 아메리칸항공은 2013년 US에어웨이즈까지 인수하며 몸집을 더 키웠다.

결과적으로 미국 항공시장은 빅3(유나이티드·델타·아메리칸) 중심으로 재편됐다. 미국 내 LCC 시장만 보면 40여 개에 달하던 항공사 수는 9개로 감소했다.

나라가 빠르게 모여 국가 경계가 모호한 유럽의 항공시장도 변화무쌍하다. 미국이 본격적인 시장경쟁에 돌입하자, 가격 경쟁에서 밀린 유럽 역시 1980년대 후반 들어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항공 자유화 바람이 전 세계에 확산됐다.

이 기간 유럽에서도 항공사가 수시로 생겨나고, 그만큼 빈번히 파산했다. 유럽 내 항공사 간 다양한 M&A도 이뤄졌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여 년간 6개까지 늘어난 LCC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상당수 LCC들의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 '보이콧 재팬' 여파가 수익성 악화를 부채질했으며, LCC뿐 아니라 FSC인 아시아항공도 매출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다.

특히 일본 수요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혁신이 부재한 LCC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시아항공 매각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항공시장 재편의 시작, 즉 본격적 M&A가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의 과정을 우리도 가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일본 노선 수요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부터 정발(경영이) 어려운 LCC들이 나올 것이고 소멸 또는 M&A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우스웨스트, 이지넷, 라이언에어 등 세계적 LCC들이 감행한 가격 파괴 등과는 혁신 없이 단순히 비행기를 띄워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유턴기업 늘리려면 인정범위 확대를"

환경연 제도개선 촉구 "고용보험 지급기간도 늘려야"

유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턴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기업 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유턴 실적은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턴기업이란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칭한다.

유턴의 환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 인상,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비용 상승으로 해외 사업장 운영 여건이 악화한 데다, 사업주들의 고령화로 귀향 의지까지 높아 지금이 유턴 활성화의 적

기"라며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유턴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은 유턴 인정 범위, 고용보조금, 신용보증, 지역제한, 인력, 대기업 유턴, 경영환경 일반 등 7개 분야에서 10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미국이나 일본처럼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유 실장은 주장했다.

유 실장은 "유턴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 직접생산 또는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조금 지급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턴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 지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휴온스



빛 나는 하루 빛 나는 피부

이너셋 허니부쉬

THE 더 예뻐지고 19 허니부쉬
THE 더 아름답고 19 허니부쉬

*부원료 :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함유

고객센터 : 1800-4414

에어서울 '김포~제주 1년 탑승권' 현장 추첨

에어서울이 2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제주 노선 1년 무제한 탑승권' 등을 추첨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김포-제주 신규 취항을 기념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 진행했던 '제주 노선 50일 무제한 탑승권' 이벤트 당첨자 300명 중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중 현장 추첨으로 1명에게 '김포-제주 1년 무제한 탑승권'을 제정했다.

이밖에도 하노이, 다낭, 보라카이, 코타키나발루, 홍콩 등 동남아 노선 국제선 항공권과 에어버스(AIRBUS) 모형 비행



에어서울이 2일 김포공항에서 진행한 '제주 노선 1년 무제한 탑승권' 행사에서 당첨자와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에어서울

기, 기내 면세 이용권 5만 원권 등 참가자 모두에게 다양한 경품을 지급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니코틴 0.001mg 비타본 센스, 담배로 오해 속상해요”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⑤ 임보민 '비타본' 대표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편의점에 이어 면세점에서도 판매 중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일명 '비타민 베이퍼' 업체인 '비타본'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입장이다.

'태우는 비타민' 일본서 획기적 금연 보조제로 큰 인기 국내선 임상시험 거쳐 허가받아야... 수십억 비용 부담 “어쩔 수 없이 니코틴 극소량 첨가... 전자담배와는 달라”

비타민 베이퍼란 금연 보조 기기의 하나로 태우는 비타민을 뜻한다. 시장을 처음 개척한 것은 비타본이다. 비타본은 2016년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이름을 알렸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톤키호테' 등에 입점하며 2016년 한 해에만 600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업 시작부터 규제에 가로막혀 험로를 걸어야 했다. 지난달 29일 임보민(42) 비타본 대표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만나 규제 문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가를 받는 데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 스타트업인 비타본으로서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임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임 대표는 “당시 7가지 제품의 허가를 받으려면 30억 원이 소요됐다”며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 뒤 비타본은 어쩔 수 없이 니코틴 0.001mg을 첨가해 국내 시장에 제품을 내놨다. 올해 5월 출시한 '센스'는 2mg 액상에 니코틴은 0.001%만 사용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엄연히 구분된다. 임 대표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넣은 니코틴 때문에 비타본이 전자담배처럼 인식되는 점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임보민 비타본 대표가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파크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권고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임 대표는 “베이퍼 시장이 '전자담배'와 묶여 같은 분류로 보이면서 오해를 받고 있었다”며 “오히려 지금 그들과 완전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단언했다. 이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연초 회사와 전자담배 회사 간 싸움에 피해를 보는 면이 있지만, 비타본의 건강한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담배와의 혼동 문제로 최근 비타본은 소송을 걸기도 했다. 지난달 2일 비타

본은 담배 회사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AT가 출시한 액상형 전자담배 '글로벌 센스'가 비타본 센스와 상표 혼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임 대표는 “금연과 흡연은 정반대인데 BAT의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이 혼동하고 있다”며 “글로벌로 진출할 예정인데 계속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비타본에 따르면 BAT는 아직 아무런 답변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타본은 금연보조제품이다. 금연보조 제품으로서 경쟁력을 묻자 임 대표는 “금연에 실패하는 것은 피는 행위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결핍이 크기 때문”이라며 “비타본은 흡입 행위를 남긴 채 유해성분만 제거해 다른 금연 보조기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크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승승장구하던 비타본은 지난해 중국산 가품 이슈로 잠시 일본 수출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수출 재개했는데 올해 판매 규모를 일본과 국내를 합쳐 4만 대로 전망하고 있다. 임 대표는 10년 뒤에 연초 시장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글로벌 담배 회사가 얼마 안 가 사라질 거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곤 했다”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웃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과도기”라며 “비타본도 머지않아 '노 타르', '노 니코틴'으로 한국에서 팔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일본 외에도 미국, 유럽, 중동까지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여러 나라의 유통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다. 임 대표는 “천연오일을 추출해 그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연구실을 만들 것”이라며 “글로벌 제약 회사와의 제휴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진미 기자 aaaa3469@

“공유 모빌리티, 법제화 전에 사라질 위기”

'타다' 기소 후폭풍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택시업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타다 불법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스타트업계는 성장 길을 막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타다 기소 진실공방>...소통 부재 정부·검찰 =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측은 기소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들은 바 없다며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상 증명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스타트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산업은 마냥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날선 발언을 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타다 논란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소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조율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해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는 견해다. 조사 결과 검찰이 의견을 전달한 곳은 '법무부'였고, 이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이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끼리도 소통이 되지 않는데 업계 간 대화만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실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조차 조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의견을 타협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타다 금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보기	응답 수
단체관광(렌터카) 목적으로 허가 받았는데 콜택시 영업하는 것은 불법		78 (28%)
기사 자질 검증 미흡		64 (23%)
기존 영업·운영행태 파괴		68 (24%)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현행법 조항)		65 (23%)
기타		5 (2%)
계		280 (100%)

'불법 운행'으로 판결되면 다른 업체들 역시 문 닫아야 법제화 노력 물거품 될 수도 '사전 기소 통보'... '못받아' 검찰-국토부, 날 선 신경전 법무부, 보고받고 전달 안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 논란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간 대화 필요>...빠른 제도화가 관건 = 타다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른 시간 내에 제도화를 정립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이어진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에서 국토부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지 않고 옹고그를 판단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월 17일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들을 계속 이

타다 허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보기	응답 수
(기사) 일자리 보호		108 (6%)
공유모빌리티 시장 확대		640 (38%)
·스타트업 육성 지원		671 (40%)
현 택시영업 문화 개선		197 (12%)
현행법, 규제 완화		49 (3%)
기타		1665 (100%)
계		1377

어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다와 관련한 문제는 이른 시간 안에 제도화를 이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타다의 운행이 불법으로 판가름나게 되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제화도 무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타다를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짓밟았다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만약 타다가 불법으로 판결된다면 유사한 형태의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 역시 사업을 다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의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네이버 “홈페이지 뚫어보시죠”

인터넷진흥원, 화이트 해킹대회 ‘핵 더 챌린지’ 개최

“해외처럼 ‘포상제’ 운영 필요”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홈페이지와 서비스 취약점을 발굴하고 신고하는 ‘핵 더 챌린지’를 개최한다. 내부 보안 전문가의 시각을 넘어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 보안 취약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만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전자책 서비스 ‘리디북스’ 운영사 리디, 보안 스타트업 ‘소테리아’가 참여했다. 네이버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층을 보유하면서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보다 취약점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미 여러 방면에서 방어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자신감

도 작용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집단지성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해외에선 버그 바운티(신고 포상제)가 활성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소프트웨어에서 버그나 취약점 등 보안 문제를 발견한 사람에게 상금이나 포상을 지급하는 ‘버그 바운티’가 활성화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보상금을 1만5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7월엔 자사 ‘다이내믹스365’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최고 2만 달러(약 2400만 원)의 보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김우람 기자 hura@

SKT-행안부,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협력

수신위치 정확도 향상 기대

SK텔레콤이 정교한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힘을 모은다. SK텔레콤과 행정안전부는 기지국 셀 기반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SK텔레콤과 행정안전부는 이동통신망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발송 범위를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운용범위인 셀 기반 수백미터 단위로 좁힐 수 있는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연간 재난문자 발송 수는 2016년 375건에서 지난해 860건으로 증가하는 등 정

부와 지자체에서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송 시스템은 발송 권역이 넓어 일부 이용자가 위치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재난 문자를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공동 협력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수신 위치의 정확성이 개선되어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SK텔레콤과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별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기술도 검토 중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검찰, 이르면 이번 주 조국 소환

정경심 교수 구속만료 11일 이전 가능성 주식거래 방조, 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입시비리·웅동학원 등 모든 의혹 조사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 소환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일가친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부인과 동생, 5촌 조카가 모두 구속된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소환 시기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정 교수에 대한 추가 혐의 기소를 앞두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한 뒤 이뤄진 네

차례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연루 혐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현안이 없다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조사 △증거은닉

교사 등 최소 네 가지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터넷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의심한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는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자와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 허위 작성에 연루됐다고 본다.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에도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데 따라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소환 시나리오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회식 후 무단횡단 사고 경찰관, 순직 아냐”

법원 “공무와 관계없어”

경찰관이 회식한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뒤 팀원들과 밤 늦게까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는 먼저 집에 가겠다고 회식 장소를 떠나 본인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던 중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A 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 씨가 공무

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 측은 “A 씨가 이날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사망이 ‘공무상 부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A 씨는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량도 만취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지만, A 씨는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여 일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대학 합격과 수능 고득점 소망이 담긴 국화꽃이 놓여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서울시민, 3번 이상 ‘따릉이’ 탔다 4년간 누적 대여 3000만건 돌파

서울시민 1명당 3회 이상 공공전거 ‘따릉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출·퇴근시간대에 이용됐으며, 단거리 이용자와 20분 이내 운행시간 비중이 가장 컸다.

서울시는 4년간 누적 대여건수 3000만건을 돌파한 따릉이의 이용 현황을 분석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통계자료’를 3일 발표했다.

시간대별 이용량을 보면 출·퇴근시간대(오전 7~10시, 오후 5~11시)에 전체 이용의 56.4%가 집중됐으며 출근길보다는 귀갓길에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는 출근시간대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오전 7~10시)

동안 급증하는 반면, 퇴근시간대에는 6시간 동안(오후 5시~11시) 시간당 3000건 이상의 이용량이 꾸준히 유지됐다.

따릉이로 이동한 거리를 보면 4km 이내 단거리 이용자가 7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분 이내 이용자는 57%였다. 출근시간대에는 평균 2.6km, 퇴근시간대에는 평균 4.3km를 이동했다. 출근길에는 교통수단으로 주로 활용했다면 퇴근 이후에는 교통과 운동을 겸해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주말에 이용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과 달리 따릉이는 주말에도 주중과 이용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말에는 출·퇴근용 이용이 감소하는 대신 운동·레저 등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년간 따릉이 이용 회원은 총 166만 명으로 서울시민 6명당 1명이 가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300여 명의 시니어를 위한 공감 매거진

신동과 현대를 넘어 창조적인 융합적 예술세계 에원 손인숙 작가, 실그림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한국 예술의 숲을 수놓다

연더그라운드와 전설, 신촌블루스를 만든 남자, 영인호

배우이자 감독인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죠'

인생을 위한 힐링이시겠습니까?
it's time for tea

COVERSTORY 인생茶 한 잔 하실래요?

PART1. 차 입문 - 차근차근, 차의 세계에 다가가기
PART2. 차의 진실 - 신아초 전문가 전문회와 다담(茶談)하다
PART3. 맞춤 차 분석 - 취향 저격, 내게 맞는 차 고르기
PART4. 체질별 한방차 - 내 몸이 茶茶 좋아지는 건강 한 모금
PART5. 캠핑 체형 1박 2일 - “평주와 다비(茶道)를 즐겨요”
PART6. 힐링 찾기 순례 - 차 맛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낸 명소 5곳5색

더불어 숲

호수를 담은 마음으로
언지 못할 사랑이 있구나

귀촌

인생의 쓴맛 안엔 보약도 들어 있다

애석한 사실 하나 귀찮고 그의 귀농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귀농 7년 차. 농사도 살림도 어떤 자리 잡힐 만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문기(문)씨는 아직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자나 깨나 전명을 흘리는 것 같다. 화살을 쏘았으나 여태 과녁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속사정을 모르는 남들은 일쑤 ‘귀농우수사례’로 치자면, 사실은 슬며 시련에 가깝다는 게 아닌가.

신라비가 만난 사람

김정현씨가 그려온 11월에는 빙행하기 싫어 공연해요!
연더그라운드와 전설, 신촌블루스를 만든 남자 '영인호'

천동과 현비를 위한 창작으로 윤영희 예술세계를 수놓다
실그림 아티스트 박수민 작가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죠!
배우이자 감독인 김경조

터번터번 산책

청리언덕 넘어 김광석골목까지,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대구 청리언덕으로 가는 길에 기국 동우생각을 증명했다. '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리언덕 위에 백합 필 적재나는 흰나리꽃 향내 맡으며...' 어릴 적 배운 노래인데도 노랫말이 또렷이 떠올랐다. 우리라 큰데 노경을 묘사한 백화골목을 차차 아늑한 언덕이 나타났다. 청리언덕은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다웠다.

고고가게

지하철로 떠나는 오래된 맛집, 이용하야 고고가게를 지난 5개월에 걸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으로 나눠 총 6곳을 소개했다. 맛과 추억, 음식 넘쳐와 사람 넘쳐와 풍요로운 피아오르던 그곳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려 한다. 그동안의 여성을 조명하며, 특별히 해외 독자들과의 친목을 위한 영문 버전도 함께 준비했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암과 노화 예방에 좋은 녹차 활용 레시피

상속과 증여 돌아보기

김성우 변호사 기업승계 최신 트렌드와 전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양사고 절반으로 줄인다

(10년 내)

해양교통안전공단, 사고원인·취약점 분석 예방책 마련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능동적 안전관리 등 사업 발표

올해 7월 1일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출범 10년 이내 해양사고를 50% 줄인다’는 목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해양사고 예방센터 신설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활동 강화 및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능동적 안전관리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선박 인증 개발 및 선박 대기오염물질 종합관리 △해양교통안전 통합정보 인프라 구축,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업무 체계성과 전문성 확보 △해양안전교육과 교통방송 등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 주요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공단 관계자는 “법 과정에서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30여 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고,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60명을 증원했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두르고 있는 핵심 사업은 바로 ‘해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다.

육상교통의 경우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교통안전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교통의 경우는 해양교통 안전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운용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양교통과 해양사고, 해양환경 분야의 정보가 각각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해양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단 관계자는 “해양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며 “해양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절실한 이유는 해양사고·해양교통량·해양관측·검사도면·기상·해양관측·선박검사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사고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상황실.

사진제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 해상교통, 선박검사, 어선거래, 해운선사,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위치, 안전도 분석 등의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해양사고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선박검사기준 개선,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현재 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관리 정보를 중점 관리하고 있

음을 파악한 뒤 이를 활용한 체험기반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다에서 생업을 잇는 어업인들도 선박 정보, 기상 정보 등 안전한 항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지만 공단이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해사안전법 제43조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도 해양사고와 해양사고 원인 자료를 갖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전자해도 자료를 수집하는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기상·기상특보 자료를 보유한 기상청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자료를 통합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현재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하나로 지난달 15일에는 해양기상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해양환경공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성과 공유”

학계·산업 전문가 100명 참석 논문 발표 후 발전 방향 토론

해양환경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 세션은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성과 및 활용을 주제로 효과적인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이번 세션을 통해 △국가 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현황 및 발전 방향 △한국 연안 퇴적물 중 유기물 및 중금속 농도분포 특성 △한반도 해역 해양생태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광역 해양생태계 자료의 합리적 분석방법 등 총 9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는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확보해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는 소식지 ‘숨’과 바다생태정보나라(www.ecos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기 이사장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성과를 공유할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학계 및 연구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욱 효율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등 ‘일·가정 양립’ 앞장 강원랜드 ‘워킹맘&대디 지원’ 우수사업장 선정

강원랜드가 일하는 아빠와 엄마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다. 강원랜드는 이달 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2019 부모교육프로그램 전문가 위촉식 및 평가회’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특별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일·가정 균형 지원을 위해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파견 교육을 하는 ‘워킹맘&대디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공유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강원랜드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40여 개의 기업 중 국민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함께 우수사업장으로 선정, 회사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강원랜드는 올해 초 ‘워킹맘&대디 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공단에 신청하고, 유아(만3세-5세) 자녀를 둔 워킹맘과 워킹대디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3회의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원랜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 △탄력적 시간 근무제 △여성위원회 운영 △난임 휴직제도 등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화제의 신간



1천만 관객 대종상 수상 영화 <관상>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한 개인의 정신적 발전 과정을 불교적 관점으로 추적한 역사이다. - 이청준 소설가
제대로 갖추어진 소설로서의 틀과 문장력, 우선 재미있게 끌고 가는 힘이 있다. - 정규용 문학평론가
언어를 잘 꿰어 갈무리한 문체의 특성과 백정의 한과 사무친 실음의 웅여리를 불교적 사유와 순환의 구조 속에서 감동으로 말해 주고 있다. - 김선학 문학평론가·교수
한(恨)이라는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백정의 이야기를 도(道)로 승화시킨 점이 아마 가장 훌륭한 점이 될 것이다. - 서정기 문학평론가·교수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무한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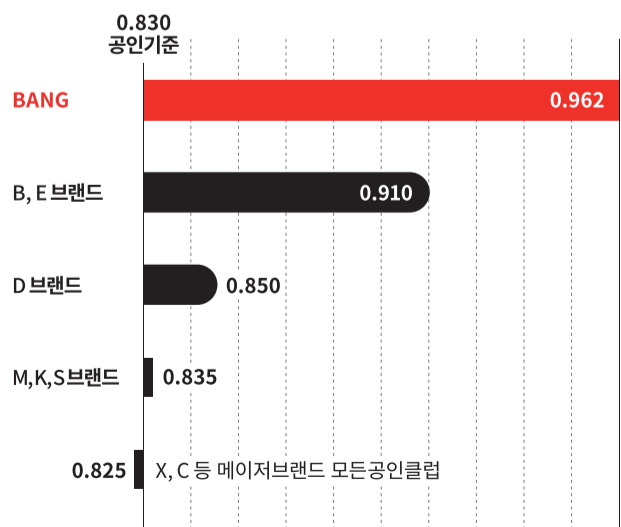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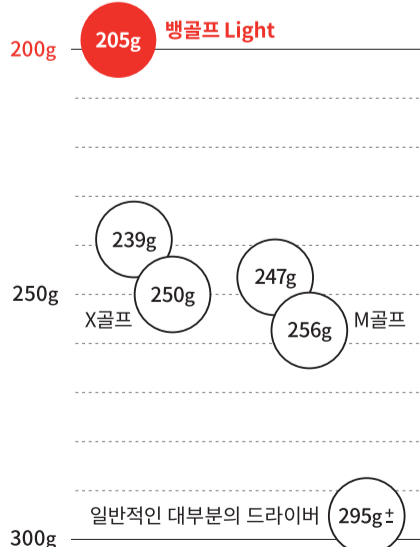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기업상속특례는 부자감세와 다르다

기업승계는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승계한다. 단순히 부의 무상이전으로 확대 해석하여 상속세를 증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대주주가 사망 전까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유족은 2700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유족은 지난해 상속세로 9125억 원을 신고했다.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주식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더 물리는 '대주주할증상속'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상속'이라는 특례를 두어, 최대 250억 원까지 상속세를 덜 내게 한다. '대주주할증상속'은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상속하는 경우에 사실상 65%까지 높은 세율로 할증하는 것이다. 엄청난 상속세로 인하여 대주주의 경영권이 상실될 수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등의 제도를 두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로 부과함으로써 대주주의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최대 60%까지의 세율로

2020년부터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높다.

'기업상속' 제도는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했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최대 250억 원까지 상속세를 덜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까다로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지분 50%(상장회사는 30%)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로 5년 이상 종사했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고, 2년 이상 기업에 종사했고, 상속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기업상속을 받은 후에도 까다로운 여러 조건을 두어 이를 어기면 상속세를 추정한다. 즉, 상속받은 후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는 10%)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비롯하여, 상속인이 기업에 계속 종사해야 하고 지분을 감소하지 말아야 하며, 정규직을 100%(중견기업은 120%) 유지하고 동일 업종을 계속하

여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기간과 고용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 유지 요건도 좀 더 완화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상속에 대한 세금을 현금, 건물, 땅, 금 등보다 더 증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을 통해 기술과 종업원을 승계하는 것은 큰 사회적 기여이다. 부자 감세로 보거나 너무 까다롭게 하여 기업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의 경우 그 기업만의 고유한 노하우와 기술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계승 발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도 없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 상속세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과도하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

국 자본에 지배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10여 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국가는 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대주주 기업상속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65% 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상속은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다. 2017년 기업상속 공제 금액은 전체 상속세 중 2.83%였고, 건당 462만 원이었다. 상속세 전체의 건당 공제 금액이 265만 원이었다는 점에서 기업상속은 매력을 잃고 있다.

기업승계는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승계한다. 단순히 부의 무상이전으로 확대 해석하여 상속세를 증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대주주가 사망 전까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게 상속세율을 소득세 수준으로 인하하고, 기업상속의 조건도 더욱 완화해야 한다.



안승호의 오! 마이마켓

승실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 회장

무슨 일이든 뭐가 잘못되면 그 원인을 제대로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일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또다시 대형점 규제 얘기가 들려온다. 대형점이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 부진의 원인이라는 말이다. 이 같은 주장의 압권은 롯데월드타워의 면세점마저도 전통시장 부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어느 주말에 동네 순댓국 밥집을 가려다가 하필이면 최고급 호텔이 근처에 있어 스테이크를 먹게 된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그리고 빈번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다를 바 없다.

다른 업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전통시장이라는 유통업태가 업태로 구분될 수 없다면 차별성이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차별성이 부각될 때만 흔들리지 않는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전통시장은 '전통적으로' 인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 위주의 제품과 신발 및 잡화 등의 일상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아쉽게도 이제 취급 품

목이나 상품군에서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취급 상품의 가격대나 브랜드, 식품이라면 가공의 정도 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전통시장의 차별성은 무엇이나 묻는다면 식품은 원재료 위주로 그리고 잡화는 저가 제품을 취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전통시장이 내세우는 가격적 매력에 이끌렸던 소비자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역은 한 때 전통시장의 주요 고객이고 가족의 쇼핑을 담당하던 주부들이다. 대한민국의 주부는 점점 바빠지고 있다. 2006년에는 30% 후반에 머물던 맞벌이 가구가 이제는 50%에 육박하며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맞벌이 가구가 훨씬 더 많다.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이고 항상 시간당 효율성 혹은 효율성을 생각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급노동자인 주부가 느끼는 시간 부족은 남성에 비해 평균 2.5배, 그리고 전일제 유급노동자인 주부는 무려 6.6배나 높다. 이러한 변화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간당 효율성이 중요하므로 쇼핑 장소를 고르다면 필요한 물건을 모두 다 구매하는 곳이 중요하다. 전통시장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적어도 1km 이상 떨어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대형마트를 찾아야 쇼핑을 완성할 수 있다면 과연 처음부터 전통시장에 갈 것인가? 시간당 효율성은 단지 쇼핑의 효율성을 넘어 외출의 효율성으로 확대된다. 나간 김에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미용실도 가고, 은행도 들르는 식이다. 특별히 일요일의 쇼핑은 상품 구매와 함께 가족과의 일주일 만의 여정이다. 온 식구가 즐겨야 할 귀한 시간에 문을 닫은 대형점 대신 전통시장을 간다면 외출의 효율성은 1도 없다. 그래서 대형점 일요일 휴일 규제는 평일 휴일 규제보다 전통시장에 덜 이익이다.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는 바쁜 주부들에게는 부담이다. 1980년대만 해도 닭이 먹고 싶다면 생닭부터 시작했어야 할

식재료는, 이제는 부위별로 손질되어 있거나 튀기거나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그것도 귀찮으면 식당에 가거나 배달 주문을 하면 된다. 바빠진 주부에게 전통시장의 경쟁자는 면세점이 아니라 식당이나 음식배달 업체이다. 판매자가 더 많은 가공을 하면 비싸지지만, 소비자가 직접 손질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의 가치를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 식재료가 된다. 전통시장의 저가격과 많은 손질의 필요성이 있는 상품 품색은 바빠지는 주부를 위해 손질이 덜 가는 그리고 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의 부진은 청년 창업이 부족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형점이 있어서, 온라인 거래를 못 해서가 아니라 주고객인 주부들이 바빠졌기 때문이다. 이제 전통시장은 얇아진 주고객층에 맞추어 규모와 숫자를 줄이거나, 그들의 취향에 맞게 구조 조정을 하거나, 상점가나 식당가로 변신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 필요한 것은 변화를 주도하고 기획하는 지도자이다.

전통시장 부진은 바쁜 주부들 때문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지 무어 명언 "우린은 과거에의 집착보다 미래의 희망으로 살고 있다."

관념론에 반대해 신실재론(新實在論)의 입장을 취한 영국 철학자. 관념론은 존재를 지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는 실제로는 대상이 있고 이것이 지각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73-1958.

☆ 고사성어 / 타면자건(唾面自乾)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것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 처세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원전은 십팔사략(十八史略). 축천무후(則天武后) 때 황제의 총애를 받던 누사덕(婁師德)이 아우가 대주자사(代州刺史)로 부임할 때 한 충고에서 유래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네게 침을 뱉는다면 침 같은 것은 닦지 않아도 그냥 두면 자연히 마르게 되니, 그럴 때는 웃으며 그냥 침을 받아 두는 게 제일이다.'

☆ 시사상식 / 매버릭 매니지먼트 (Maverick Management) 1800년대 미국 텍사스에선 자기 가족에 낙인을 찍어 소유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그러나 매버릭은 자신의 가족에 낙인을 찍지 않았으며, 남의 가족이더라도 낙인이 찍혀 있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의미가 확장돼 '독불장군 경영자'를 뜻하게 되었다.

☆ 신조어 / 슬세권 슬리퍼 신고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뜻.

☆ 유머 / 지혜로운 여인 유람선이 좌초됐다. 구조 헬기가 사다리를 내리자 여자 한 명이 남자 열 명이 잡았다. 기장이 '열 명밖에 못 타요. 제발 한 명은 놓으세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줄을 놓으실 분 손 들어 보세요'라고 소리쳤다. 여자가 나섰다. "난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번 한 번 더 희생 못할 게 뭐가 있었어요? 제가 놓겠습니다." 그 말에 남자들이 손을 들어 모두 박수를 쳤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2020년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는 크래프톤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국 현지 게임화 전략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표면적으로는 화평정영이 텐센트 게임이지만 매출액 일부가 펍지 이익으로 반영될 것이다."

크래프톤과 텐센트 양사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올해 글로벌 모바일 게임시장을 달궜던 크래프톤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내기 시작했다. 매출 대상은 화평정영(텐센트 개발)이다. 게임 업계가 한국과 중국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를 본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화평정영은 공식적으로는 크래프톤과 관계 없다. 화평정영을 알리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이하 배그 모바일) 이해가

기자수첩 고종민 자본시장1부/kjm@

열리지 않는 중국 판호 해법 찾기

필요하다. 크래프톤은 자회사 펍지를 통해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했고, 펍지는 배그 모바일을 중국 텐센트와 공동 개발했다. 문제는 배그 모바일이 중국에서 판호를 받지 못해 출시 자체를 못한 것이다. 판호는 중국 정부가 자국에 출시되는 게임에 발급하는 일종의 서비스 인허가권이다. 펍지는 그동안 텐센트를 통해 현지에서 유료 결제

없는 시험 서비스(OBT) 형태로 '배그 모바일'을 운영해왔지만 판호 문제로 올해 5월 중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 사이 등장한 게임이 '화평정영'이다. 텐센트는 화평정영이라는 이름으로 배그 모바일을 출시했다. 물론 크래프톤은 "화평정영은 배그 모바일이 아니다"라고 공식 답변을 반복하고 있지만 게임 내용이나 그래픽이 배그

모바일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크래프톤이 배그 모바일 IP를 포기하는 대신 화평정영의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 구조로 추측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형국이다. 국내 게임사가 실익은 취할 수 있지만 대외적 인가나 인지도는 중국 기업이 챙기는 셈이다. 그나마 배그 모바일 정도의 글로벌 히트작은 이 같은 계약 방식이 가능했다. 판호 발급 중단 초치를 우회해 게임을 출시할 만큼 게임 성공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판호 발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중소 게임사들의 생존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배그 모바일 사례와 같은 면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징후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다. 핵심은 상호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다. 상호관용은 정치인들이 서로를 적어 아닌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집단적인 의지이며, 제도적 자제는 헌법적 권한이라도 그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로 이 규범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이렇게 경고한다. 구체적인 위기 신호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을 꼽았다. 우리 정치를 현장에서 보고 쓴 것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자정기능을 상실한 무능한 정치와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여야, 언론에 화살을 돌리는 지도자는 우리 현주소다.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무너지는 위기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미국 정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경선서 걸러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포퓰리즘이 이미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기승을 부린다. 가짜뉴스도 넘쳐난다. ‘사실이 진실이 아닌 인식이 진실’인 세상이 가까이에 있다. ‘조국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진보와 보수진영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갈등의 뿌리는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그들만의 ‘인식의 진실’이다.

정치권은 이런 비정상상을 바로잡아주는 커닝 되려 부추긴다. 정치의 자정기능은 사라졌다.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 두 명이

데스크칼럼

이재창

오프라인뉴스룸 에디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다. 그들을 질식케 한 것은 ‘부끄럽고 희망 없는 정치’다. 이철희 의원은 불출마 입장문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부정과 검찰의 제도적 방종으로 망가지고 있다.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가 되 버렸다”고 개탄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정치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다. 여야는 경쟁자가 아닌 적이다. 여는 야를, 야는 여를 정산 대상으로 여긴다. 공존하는 경쟁자라는 최소한의 인식도 없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싸움이 일상화된 건 당연한 결과다. 이 의원은 검찰의 제도적 방종을 언급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집권세력의 방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정치에 이용한 것은 다름 아닌 집권 세력이었다. “정치인이 되레 정치를 죽이고 정치 이슈를 사법으로 끌고 가 그 무능의 알리바이로 삼았다”는 이 의원 말에 다 녹아 있다.

최근 여권의 언론 공격이 도를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사퇴 때 ‘언론의 자기 개혁’을 주문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연 언론이 균형 있게 사실을 전달하는지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만이 ‘개혁’과 ‘성찰’이라는 단어에서 묻어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법무부가 언론을 옥죄는 훈령과 규정을 쏟아내는 것은 그 연장선상이다.

불안한 국정운영도 분명한 위기 신호다. 무리한 정책 실패는 국민과 국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 가치인 평등논리를 앞세워 정책을 쏟아냈다. 결과는 참담하다. 정치 경제 외교가 다 흔들리고 있다.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이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역풍이 거세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정권의 가치를 훼손한 최악의 인사 참사였다.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조국 카드’를 밀어붙여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조국 사태로 공정성이 사회 화두가 되자 문 대통령은 불속 대입 정식 확대를 꺼냈다. 교육부조차 사전에 몰랐다고 하니 줄속 추진이 우려된다. 다각 갈등을 빚는 외교 안보는 말할 것도 없다. 일본과는 장용문제로 최악의 대결 국면이고 남북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다. 문 대통령이 평화 경제를 강조한 다음 날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선언한 게 현주소다. 미국과는 방위비 증액을 놓고 불협화음이 나온다. 더 큰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등산으로 치면 하산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안정적인 국정 관리가 절실하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곤란하다. 경제 인사 등 실패한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게 다수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leejc@

사설

‘증세’ 말하기 앞서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세(增稅)’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내놓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증세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확대 권고도 여기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2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증세의 불가피성이 강조됐다. 국가채무 증가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의 재정적자는 72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 대비 40%를 넘고, 2023년 46% 이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294조7919억 원)보다 0.9% 줄어든 292조391억 원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더욱이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이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지출을 늘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와 기금운용수입 등 총수입은 471조 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476조4000억 원

보다 5조4000억 원 적다. 내년에는 총수입이 477조2000억 원으로 정부 전망치인 482조 원에 비해 4조8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3.0%, 내년 3.8%로 잡은 반면, 예산정책처는 악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올해 2.1%, 내년 3.5%로 예측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수입과 지출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수출 감소와 투자·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은 올해 1%대로 추락하고, 내년 개선전망도 어둡다. 물가상승률 또한 3개월째 마이너스 또는 0%대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온다. 재정악화 속도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증세밖에 길이 없다.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증세 없는 재정확대는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기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 또한 크다. 문제는 확대일변도의 재정이 제대로 쓰이느냐 하는 점이다. 내년 정부예산안 513조5000억 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분야만 181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35.4%다. 넓은 범위의 복지지출로, 민간 활력을 살리고 성장을 견인하는 경기마중물로 보기 어려운 소모적 선심 예산이다. 증세를 말하기 앞서, 돈이 허투루 새는 것부터 막는 지출 구조조정이 급선무다.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부 차장



지배구조 개편, 정의선의 고민

출발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시장 분석과 주가 향방, 주주의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요. 그런 면에서 지난해 3월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지배구조 개편안은 최적의 전략이었습니다. 내용은 둘째로 쳐도, 추진 시점이 기막혔다는 것인데요. 재계에서는 ‘무엇을 하든 정권 초기에 해야 뒤탈이 없다’는 게 정설로 통합니다. 현대차그룹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적절한 시점을 찾았고, 그 시점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 추진이 무산되고, 나아가 1년 넘게 재추진이 미뤄지면서 그룹 안팎에서는 “이번 정권 내에서 개편안 재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속속 나옵니다. 실제로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이 같은 맥락의 의견과 내부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깐요. 현대차그룹 입장에서 서둘러 좋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개편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보일 만큼 최적의 때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의 반대로 개편안이 무산됐지요. 그룹 입장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현 정부 5년 임기 중 중반을 넘어서면서 사정도 달라졌습니다. 역대 정권의 임기와 재계 주요기업의 중대 현안을 맞물려보면 개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정권 초기에 중대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늦어도 정권 중기에 마무리됐습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시절 대우건설 매각(2006년), MB 정부(2008-2013년) 때 현대건설 매각(2011년) 등이 정권 초기에 시작해 중반에는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 지배구조 재추진을 서둘러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뿐인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던 재계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도 대부분 정권 초기에 이뤄졌습니다. 흑역 정권 말기에 주요 현안을 추진하다 정권이 바뀌면 자칫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고민도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화장실에 가더라도 정권 말기는 피하자’는 재계의 통념을 따를지, 아니면 ‘정의선 시대’를 열기 위해 현 정권의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unior@

가장 우리말 한 토막

며칠 전 버스를 탔다. ‘교통약자석’이 눈에 띄었다.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 아이를 밴 여성 등의 그림이 그려진 흰색 바탕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 옆엔 만삭의 그림이 그려진 ‘임산부 배려석’ 안내 스티커도 나란히 붙어 있었다.

이들은 ‘임산부’와 ‘임신부’ 중 어느 것이 맞을까. 교통약자석 스티커에 있는 여성은 ‘임산부’, 임산부 배려석 스티커에 있는 여성은 ‘임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임신부(妊娠婦)는 아이를 밴 여자, 임부를 뜻한다. “만삭인 임신부는 걸을 때마다 숨이 차고 허리가 아파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임신부(妊娠婦)는 임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즉, 아이를 밴 여자와 아이를 갖 낳은 여자를 통틀어 부르는 단어이다. “아기를 낳은 후 임신부는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다”처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석 스티커에 있는 영아를 안고 있는 여성과 아이를 밴 여성을 통틀어 ‘임산부’라고 칭할 수 있다. 반면 임

임신부와 임산부

산부 배려석 스티커에 있는 여성은 만삭의 모습이므로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독감 백신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에 올해부터 임신부가 포함됐는데, 이때에도 ‘임신부’라는 표현이 적확하다. 독감 관련 안내 문구에 따르면, 예방접종 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임신부와 태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부가 독감에 걸리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하니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임신부는 소중한 생명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10개월 동안 불편한 몸으로 지내야 한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 걷기도,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진다.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 두는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임신부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배 속의 아기와 함께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도록 말이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이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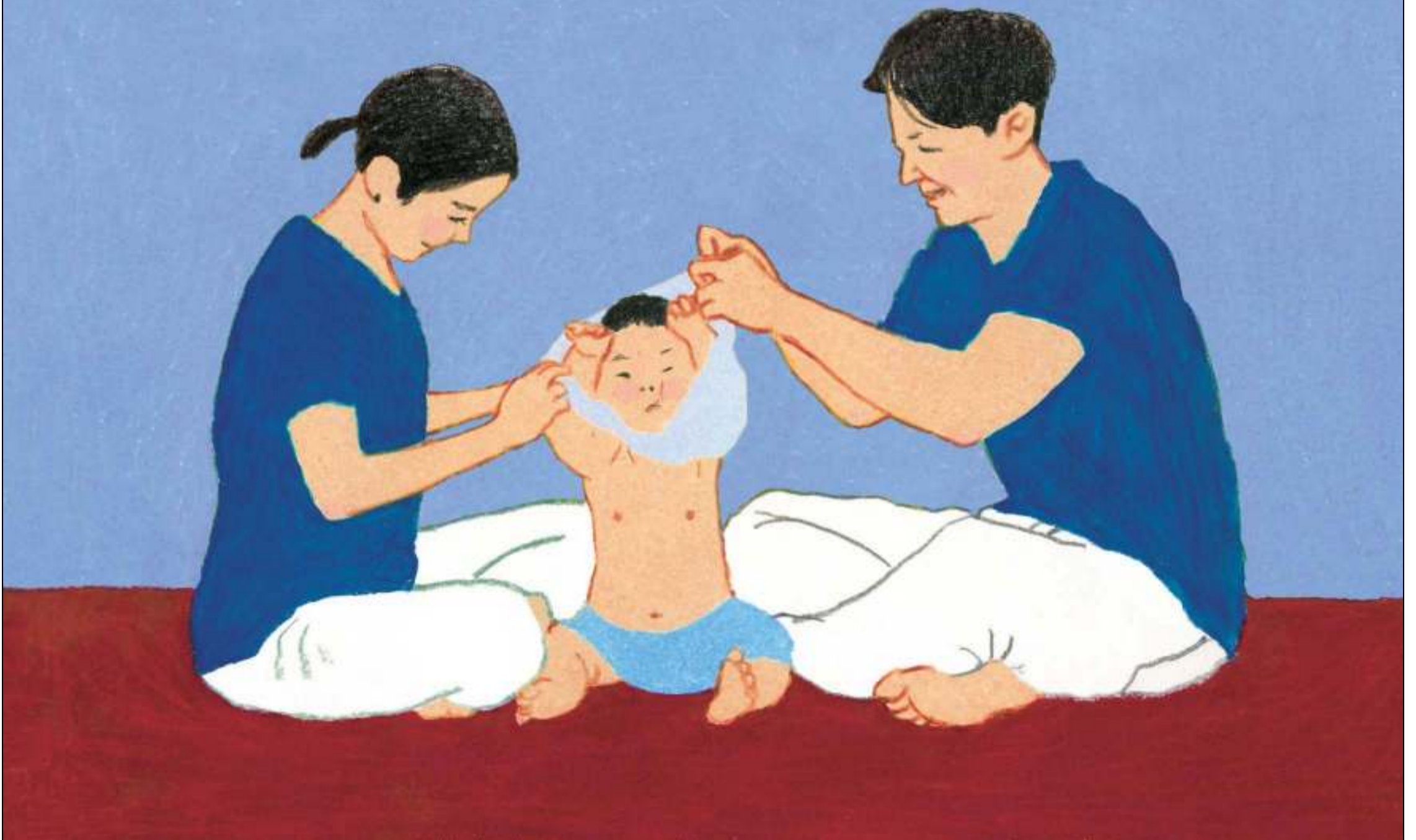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내 아이가 입을 옷이니까 내 아이가 마실 숨이니까

물과 먼지가 엉키지 않는
깨끗한 가전이어야 안심할 수 있으니까



먼지와 물을 만나게 하지 않는 것
삼성가전 안심 설계의 핵심입니다



응축수를 사용하지 않고 열교환기를
깨끗하게 직접 청소할 수 있는 **그랑데**

삼성건조기그랑데



삼성제트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따로
분리해 더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제트**